

목 차

[특집] 신흥국 보험시장 현황: 베트남 편	1
I. 해외 보험산업 제도 현황	
1. 미국 원격의료법 확대 유지 움직임	17
2. 베트남 신 보험업법(New Insurance Business 2022) 시행 예정	20
3. 영국 국민보험 인하로 인한 영국 사회의 경제적 영향	24
4. 스위스 노령유족보험(AHV) 및 퇴직연금(BVG) 개혁 동향	27
5. 일본 보험회사 업무 범위 확대 보험업법 개정 주요 내용	30
II. 해외 보험산업 시장 현황	
1. 미국 사이버 보험 시장 현황	34
2. 싱가포르 Great Eastern사의 재발위험 보장 CI보험상품 출시	37
3. 영국 아마존의 보험 가격 비교 서비스 시작	39
4. 독일 장기요양보험 재정문제와 사적요양보험 의무화에 대한 논의	42
5. 일본 생명보험회사 간 보험상품 교차판매 최근 동향	45
6. 중국 자율주행차 최근 동향과 보험회사의 대응 움직임	49
7. 중국 반려동물 보험 시장 동향 및 시사점	53

요 약

베트남 보험시장은 규모 면에서는 세계 43위권 수준이지만 빠른 경제 성장과 보험시장 성장, 인구 규모를 감안할 경우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임. 시장 개방정책과 2007년 WTO 가입을 계기로 베트남 보험산업에서 외국 자본의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지배구조 변화와 시장 경쟁 심화가 관찰되고 있음. 주요 특징은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외국사와 저축·투자형 보험시장 중심으로 발전하고, 손해보험산업은 내국사와 건강·자동차보험시장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

1. 국가 개요

- 베트남은 인도차이나반도 국가¹⁾ 중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크고, 빠른 경제 성장에 따라 신흥시장 (Emerging Market)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가임
 - 베트남은 1992년 이후 연평균 8% 이상으로 성장하고, 1인당 GDP도 약 100달러('02)에서 2,902달러 ('21)로 약 29배 성장하는 등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또한,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 약 1억 명에 육박하는 인구, 생산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약 70%에 달하는 인구 구조 등으로 인하여 외국 자본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함

〈표 1〉 베트남 국가 주요 지표(2021년)

항목	지표 현황	항목	지표 현황
면적	33.3km ² (남한의 3.3배)	1인당 GDP	2,902USD(태국의 1/3 수준)
인구	9,817만 명(세계 13위)	생산인구 비중	약 70%
GDP	2,849억 USD	기대 수명	73.7세
GDP성장률	연평균 8%(1992~)	고령화비중	7.6%

자료: AXCO(2022),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1)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임

- 외국 기업의 활발한 진출, 기업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 개선, 기대수명보다 느린 건강수명 증가에 따른 국민 의료비 증가 추세 등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잠재적 보험 수요도 클 것으로 예상됨

2. 경제정책 변천

- 베트남은 전후(戰後) 국가 재건과 취약한 경제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소위 ‘도이머이’(Doi Moi)식 개혁·개방정책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함
 - ① 도입기(1986~1994년)에는 제6차 공산당대회(1986년)를 계기로 도이머이 정책을 도입하여 농업개혁, 시장경제체제 이행, 대외교역 개방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② 전환기(1995~2006년)에는 시장개방과 외국인투자에 초점을 맞춰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대내적으로 국영기업 개혁에 주력함
 - ③ 정착기(2007년~현재)는 WTO 가입을 계기로 글로벌 경제체제에 편입함에 따라 시장개방을 통한 성장방식이 공고해지는 과정임

〈표 2〉 베트남 경제정책 주요 변천

연도	주요 내용	연도	주요 내용
1976	베트남 통일 정부 수립	1995	미국과 국교 수립: 경제제재 해제
1986	도이머이 실용주의 경제정책 채택	1999	기업법 제정
1987	외국인 투자법 제정: 외자 전액출자 허용	2000	증권거래소 설립
1990	민영기업법 제정: 민영기업 허용	2007	WTO 가입
1992	시장경제 도입 헌법 개정, 외국인 투자법 2차 개정	2015	한-베트남 FTA 발효
1994	국영기업 대형화 및 민영화 추진		-

자료: 한국은행(2018), 「베트남 경제 개혁·개방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기초로 작성함

3. 보험산업 변천

- 전후 베트남 보험산업은 시대적으로 국영보험 독점, 민영화, 개방화, 정착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영보험 도입기(1976~1993년)는 국영 손해보험회사(Bao Viet)가 베트남 보험시장에서 보험업을 독점함
 - 민영보험 도입기(1994~2000년)에는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정책에 따라 1994년 국영보험회사 독점체제 폐지가 추진되고, 2000년 보험업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민영보험 사업을 시작함
 - 1996년 처음으로 생명보험상품 공급을 시작하고, 외국 자본과 합작사 허용에 따라 1996년에 도쿄해상이 Bao Viet과 최초로 합작사(J/V)를 설립하면서 외국 자본의 베트남 진출이 시작됨

- 시장 개방기(2001~2006년)에는 2001년 외국 보험회사 100% 자본의 베트남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이 시기부터 순수 외국계 보험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함
 - 2004년 생·손보사 분리 정책에 따라 Bao Viet이 생·손보사로 각각 분리되었으며,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2004~2006년에 4개 국영 보험회사가 부분 민영화되었음
- 제도 정착기(2007년~현재)에는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을 계기로 시장개방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과 2019년, 2022년에 각각 보험업법을 개정하였음
 - 2007년 외국 자본의 베트남 현지 법인 100% 인수 허용 정책에 따라 외국 자본의 베트남 보험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이후 국영 또는 민영 보험회사의 외국과의 자본제휴가 확산됨

〈표 3〉 베트남 보험산업 주요 변천

연도	주요 정책 변천	주요 시장 변화
1976	• 국영 보험회사 1사 독점체제 시작	• 국영 보험회사 Bao Viet이 독점
1993	• 보험시장 발전 정책 시행령(100/CP) 제정	• 베트남 보험업법의 원조
1994	• 1사 독점체제 폐지 • 민영보험회사 설립 허용	• 국영 Bao Ming 설립
1996	• 외국·베트남 합작 보험회사 허용 • Bao Viet 생·손보 겸영 허가	• Bao Viet과 토교해상 합작사(BVTM) 설립 • 생명보험상품 판매 시작('95)
1999	• 외국 보험사 100% 자본의 자회사 허용	• Prudential, Manulife 진출('99)
2000	• 보험업법 제정	• 민영 보험회사 자유화
2004	• Bao Viet 생·손보사 분리	• Bao Viet Life, Bao Viet Insurance
2007	•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 국영 보험회사 부분 민영화	• 외국 자본의 출자 100% 법인 인수 허용 • Bao Viet Ins., Bao Minh 등
2010	• 보험업법 1차 개정	• 민영의료보험 허용, 회사 형태 다양화, 외국계 지방 지점 설립 허용 등
2019	• 보험업법 2차 개정	• 보험업 보조업무 규제 도입 등
2022	• 보험업법 3차 개정	• 보험업법 전면 개정

자료: AXCO(2022),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4. 보험업 규제와 감독²⁾

- 베트남 보험산업은 2000년에 최초로 제정된 보험업법(Law No 24/2000/QH-10)에 근거하여 민영 보험회사의 사업 영위와 외국 자본의 베트남 보험업 진출을 규제하고 있음
 - 법률에 보충하기 위한 법 시행령(Decree)과 법 시행규칙(Circular)이 제정되어 규제되고 있음

2) NLI(2015), "ベトナムの保険監督と販売動向", NLI(2017), "ベトナム保険業法", NLI(2021), "ベトナムの保険事業規制"를 기초로 작성함

- 보험업법은 이후 2010년 1차 개정, 2019년 2차 개정, 2022년 3차 개정됨
 - 1차 개정은 외국 자본의 시장 진입규제 완화, 회사 법적 형태 다양화, 민영의료보험 등 상품 종류 확대, 보험계약자 보호 기금(PPF) 도입, 외국사 설립 시 적립금 차별 조항 폐지, 외국사의 지방 지점 영업 허용을 시행하였음
 - 2차 개정은 보험 컨설팅, 위험평가, 보험수리, 손해사정, 보험금 청구보조 업무 제공을 포함한 보험 보조 서비스(Insurance ancillary services) 규정이 신설됨
 - 3차 개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된 보험업법(안)이 2022년 6월에 의결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³⁾
- 베트남 보험업법 체계는 제1장~제7장으로 구성됨
 - 제1장(일반 규정), 제2장(보험계약), 제3장(보험회사), 제4장(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보험보조업무), 제5장(재무, 회계, 계산 서류, 보고요건), 제6장(보험업 감독), 제7장(기타 사항)으로 구성됨
 - 제2장(보험계약)은 우리나라 보험계약법과 유사한 보험계약의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 베트남 보험감독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조직인 보험감독국(Insurance Supervisory Authority)이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보험회사 등을 감독함
 - 보험감독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보험회사 사업인가 신청 시 심사와 인가 등을 통하여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여 보험종목, 지급여력, 자산운용 법규에 따라 보험회사를 감독함
- 2022년 12월 현재 시행 중인 보험업법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보험회사의 면허제도와 사업 범위 제한

- 보험업법에서는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할 경우 재무부가 보험회사 면허를 부여할 수 있고(제62조), 면허신청 후 60일 이내에 면허를 부여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5조)
- 보험회사 법적 형태는 국영보험회사, 주식회사, 상호회사, 합작회사, 100% 외국 자본출자 보험회사 등임(제59조)
- 보험사업 면허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 외국손해보험회사의 지점으로 제한하며, 생명보험 종목은 종신보험, 학자금보험, 양로보험, 정기보험, 변액보험, 유니버설보험, 개인연금보험 등으로 구성됨(제7조)

3) 개정 보험업법(2022) 주요 내용은 p. 20의 「베트남 신 보험업법 시행 예정」을 참조 바람

- 생명·손해보험업의 겸영이 금지되나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의 상해·건강보험업 겸영은 허용함 (제60조 제2항)

나.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과 지급여력제도 규제

- 보험회사는 설립 시 정관에 기재된 납입 자본금을 보유하고 계속 유지해야 함(제63조)
 - 법정 최저 자본금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건강보험 회사가 각각 6천억, 3천억, 3천억 동이며, 생명보험회사가 추가로 변액보험(또는 연금보험)을 제공할 경우 8천억 동, 생명보험회사가 변액보험·연금보험을 제공할 경우 1조 동임(시행규칙 제10조의 2항)
- 보험회사는 영업 전 기간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고(제77조 제1항), 이를 위해 책임준비금 적립(제96조)과 일정한 솔벤시 마진을 유지해야 함(제77조 제2항)
 - 생명보험회사의 최저 솔벤시 마진은 5년 미만 보험계약에서 책임준비금의 4%와 위험보험금 총액의 0.1%를 더한 것, 5년 이상 보험계약에서는 책임준비금의 4%와 위험보험금 총액의 0.3%를 더한 것으로 한도를 규제함(시행규칙 제64조)

다. 보험모집과 보험보조업무 범위

- 보험상품 모집인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인으로 제한하고 있음(제84조, 제89조)
 - 보험대리점은 보험협회 연수 과정을 수료한 개인·그 개인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으로 제한하고(제86조), 판매위탁을 한 보험회사가 판매책임을 부담함
- 베트남 중앙은행이 방카슈랑스 관련 시행규칙⁴⁾을 제정하여 2020년부터 방카슈랑스를 시행함
 - 동 규칙에서는 은행과 보험사 간 방카슈랑스 계약 시 보험료 징수 및 수수료 지급 관련 계약을 포함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한 방카슈랑스 영업을 처음으로 허용함
- 2019년 보험업법 2차 개정 시 보험컨설팅이나 손해조사 등 보험인수 및 판매보조 업무에 관해서도 규제(제3조)하고, 업무 수행자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함(제93조 b)

4) No.37/2019/TTNHNN

라. 보험계약자 보호 규제

- 제2장(보험계약)에서는 18세 미만(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과 심신장애인의 사망보험 계약을 금지하고, 생명보험계약 당사자 이외의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 가입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제38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가 파산으로 지급불능에 빠질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설립을 명시함(제97조)
 - 이를 근거로 재무부는 보험사별 수입보험료의 0.1%를 사전 출연해 보험사 파산 시 자금을 지원하는 「보험계약자 보호 기금」을 2014년에 발족하였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 파산 시 동 기금에서 책임준비금의 9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됨

마.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

- 외국 자본은 베트남 보험업법에 따라 주식회사, 상호회사, 합작회사, 100% 외국 자본출자 회사 등의 형태로 다음 요건을 갖출 경우 베트남 보험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
 - ①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베트남 영업 예정 보험사업에 대해 인가를 취득한 것, ② 본국에서 10년 이상 보험사업을 계속하였을 것, ③ 전년도 총자산이 20억 달러 이상일 것, ④ 최근 3년간 중대한 법령 위반을 하지 않을 것(법 시행령 제6조)

5. 보험산업 구조

- 베트남 보험산업은 2021년 기준으로 총 53개 보험회사가 보험시장에서 영업 중임
 - 이 중에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수는 각각 19개, 32개, 2개이며, 이외에도 현재 17개 외국계 보험회사 대표사무소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
 - 외국 자본 규제 완화 시행 후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2009~2014년 중 외국계 보험회사 설립이 활발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보험회사 수 변화가 거의 없음
 - 베트남 보험회사는 정부 및 공기업이 대주주인 내국사, 외국사가 대주주인 외자계 합작회사, 100% 해외 자본이 출자한 외국사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영 Bao Viet 생명·손해보험회사는 전통적인 내국사로 Bao Viet 그룹이 일본 스미토모생명에 지분 일부를 매각하여 부분 민영화되었지만 최대주주는 Bao Viet 그룹임

〈표 4〉 베트남 보험회사 수 추이

(단위: 개사)

구분	2015	2017	2019	2021
생명보험회사	17	18	18	19
손해보험회사	30	30	31	32
재보험회사	2	2	2	2
전체	49	50	51	53

자료: 베트남 금융감독국(2022), "THE ANNUAL REPORT 2021"

○ 베트남 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가 세계 43위 규모이지만 연평균 성장률이 20%를 넘는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임

- 베트남은 2021년 세계 보험시장에서 생명·손해보험 수입보험료 규모가 각각 44위, 50위의 국가임
- 2021년 전체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6.5% 증가한 218.4조 동 규모이며, 수입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은 2015~2021년 20.8%임

○ 베트남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비중이 각각 72.9%, 27.1%로 생명보험 중심의 시장임

- 전통적으로 손해보험 시장이 중심이었으나 생명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2015년 이후 생명보험 성장이 손해보험보다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베트남 보험산업이 생명보험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었음

〈표 5〉 베트남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규모 추이

(단위: VND bil., %)

구분	2015	2017	2019	2021
생명보험	38,271(54.5)	66,115(61.4)	106,819(66.7)	159,222(72.9)
손해보험	31,891(45.5)	41,594(38.6)	53,366(33.3)	59,135(27.1)
전체	70,162	107,709	160,185	218,357

주: () 안은 구성비임

자료: 베트남 금융감독국(2022), "THE ANNUAL REPORT 2021"

○ 이러한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신흥국가 중에서 GDP 대비 수입보험료와 국민 1인당 보험료 수준이 여전히 낮아 미래 수요 잠재력도 클 것으로 평가됨

- 베트남의 보험침투도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각각 2.1%, 0.6%로 아시아 4개국 중에서 가장 낮으며, 특히, 보험밀도는 생명보험, 상해·건강보험, 손해보험이 각각 57.1달러, 8.1달러, 18.8달러로 나머지 아시아 국가보다 약 1/4~1/9 낮은 수준임

〈표 6〉 아시아 주요국 2020년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 비교

(단위: %, USD)

구분	생명보험		상해·건강보험		손해보험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베트남	2.1	57.1	0.3	8.1	0.6	18.8
중국	2.2	223.0	0.9	91.0	1.0	125.3
말레이시아	2.8	289.2	0.1	14.7	1.1	118.9
태국	3.2	226.8	1.0	70.7	1.3	94.7

주: 1)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수입보험료/명목GDP

2)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수입보험료/총인구 수

자료: AXCO(2022),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베트남 생명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비중이 높지만 손해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비중이 높음

- 2021년 기준으로 약 112만 명 보험설계사 중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설계사 수가 각각 약 91만 명, 21만 명으로 각각 81.5%, 18.5% 비중을 차지함
- 전체 3,805개 보험대리점 중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각각 574개, 3,231개 임
- 다만, 생명보험회사 대리점과 대리점 소속 설계사 수가 최근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표 7〉 베트남 2021년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수

(단위: 개, 명, %)

구분	개인 설계사	대리점 소속		합계	비중
		대리점 수	설계사 수		
생명보험	668,744	574	243,345	912,089	81.5
손해보험	141,806	3,231	65,976	207,782	18.5
합계	810,550	3,805	309,321	1,119,871	100.0

자료: 베트남 금융감독국(2022), "THE ANNUAL REPORT 2021"

6. 생명보험시장 현황

○ 2021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1.8% 증가한 159.2조 동 규모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26.8%임

- 수입보험료는 2018년까지 매년 30%대로 증가하다가 2019년에 100조 동을 넘어선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까지 20%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음

〈표 8〉 베트남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추이

(단위: VND bil., %)

구분		2015	2017	2019	2021	연평균 증가율
수입보험료	금액	38,271	66,115	106,819	159,222	26.8
	전년 증가율	35.0	30.9	24.0	21.8	
총자산	금액	143,254	240,846	370,632	599,449	26.9
	전년 증가율	23.5	32.6	19.1	26.5	

자료: 베트남 금융감독국(2016), "THE ANNUAL REPORT 2015"; 베트남 금융감독국(2022), "THE ANNUAL REPORT 2021" AXCO(2022),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수입보험료 연평균 성장률이 손해보험 성장률(10.8%)을 상회하고 있어 생명보험 중심으로 고도성장하고 있음
 - 총자산은 전년 대비 26.5% 증가한 약 600조 동 규모이며, 총자산 연평균 성장률은 26.9%임
- 생명보험산업은 전체 19개 생명보험회사 중에서 상위 5개 회사(이하, 'CR5'라 함)가 78.1%로 대형사가 주도하고 시장임
- 다만, CR5와 CR3가 〈표 9〉와 같이 최근 감소하는 등 시장집중도는 개선되고 있음
 - 회사별 시장점유율은 Bao Viet Life(19.2%),⁵⁾ Manulife(18.7%), Prudential(18.1%), Dai-ichi(11.7%), AIA(10.40%), 기타 중소형사(21.9%) 순임
 - 최근 Manulife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Bao Viet Life과 Prudential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함에 따라 업계 2위 순위가 바뀌는 등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생명보험시장은 Bao Viet Life를 제외할 경우 외국사가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5) Bao Viet Life는 베트남에서 유일한 내국사이자 공기업으로 은행, 증권, 투자신탁, 손해보험, BV Tokio Marine, 재보험 등의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Bao Viet Holdings의 자회사로 일본 스미토모(住友)생명이 HSBC가 2007년에 취득한 Bao Viet Holdings 지분 18%를 2012년에 인수, 2018년 22.09%로 지분을 확대함에 따라 2대 주주로서 지배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음

〈표 9〉 베트남 생명보험회사 시장 점유율과 집중도

(단위: VND bil., %)

순위 (2021)	회사명	2019		2020		2021	
		수입보험료	M/S	수입보험료	M/S	수입보험료	M/S
1	Bao Viet	25,452	23.8	28,038	21.4	30,557	19.2
2	Manulife	15,082	14.1	21,356	16.3	29,695	18.7
3	Prudential	22,207	20.8	25,142	19.2	28,790	18.1
4	Dai-ichi	13,054	12.2	15,614	11.9	18,647	11.7
5	AIA	11,442	10.7	14,405	11.0	16,558	10.4
9	Hanwha ¹⁾	2,851	2.7	3,374	2.6	3,962	2.5
16	Map Life ¹⁾	453	0.4	451	0.3	542	0.3
전체	보험료	106,819	100.0	130,770	100.0	159,222	100.0
CR3		58.7		56.9		56.0	
CR5		81.6		79.8		78.1	

주: 1) Hanwha와 Map Life는 한국계 보험회사임

자료: 베트남 금융감독국(2022), "THE ANNUAL REPORT 2021"

- 상위 5개사 중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이 58.9%이고, 기타 외국사를 포함할 경우 외국계 보험회사 시장점유율은 7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 외국사 중에서 일본 Dai-ichi Life⁶⁾는 시장점유율이 8.0%(¹²)에서 11.7%(²¹)로 증가했음
 - 우리나라 Hanwha Life과 Map Life는 시장점유율이 각각 2.5%, 0.3% 수준임

○ 상품별 수입보험료 비중은 투자·저축성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21년 수입보험료 기준 생명보험 상품별 비중은 변액·유니버설보험과 양로보험이 각각 68.3%, 19.9%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특약상품이 9.9%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6) Dai-ichi Life는 2007년 일본 다이이치(第一)생명이 국영 Bao Minh Life를 인수하여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한 회사로 2016년 베트남 우체국에 보험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업무제휴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NLI(2018), "베트남 保險市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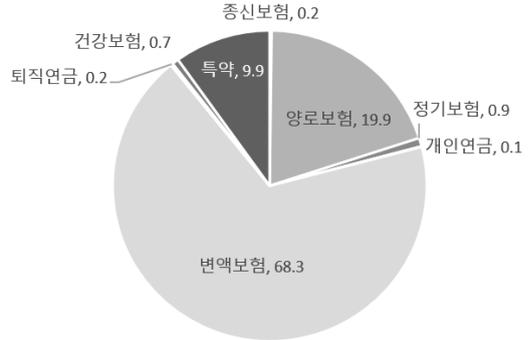
〈표 10〉 생명보험산업 상품별 수입보험료

(단위: VND bil., %)

구분	2020	2021	증가율
종신보험	290	379	30.7
양로보험	33,237	31,614	-4.9
정기보험	1,307	1,407	7.7
개인연금	287	101	-64.8
변액보험	81,558	108,695	33.3
퇴직연금	467	129	-72.4
건강보험	286	1,085	279.4
특약	13,336	15,813	18.6

〈그림 1〉 생명보험산업 상품 구성비

(단위: %)



자료: 베트남 금융감독국(2022), "THE ANNUAL REPORT 2021" 자료: 베트남 금융감독국(2022), "THE ANNUAL REPORT 2021"

- 반면, 보장성보험인 정기보험(0.9%), 건강보험(0.7%), 종신보험(0.2%) 비중이 낮고, 연금보험인 퇴직연금(0.2%)과 개인연금(0.1%) 비중도 미미한 수준임
- 다만 2021년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각각 279.4%, 30.7% 증가하는 등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에 따라 최근 이들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의 판매 채널별 수입보험료 비중은 보험설계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가 7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방카슈랑스(17%), 직판(3%), 보험중개인(3%) 순임
- 전술한 2020년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에 따라 〈표 11〉과 같이 최근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이 증가한 반면 보험설계사 판매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 최근 보험회사들은 방카슈랑스 판매를 위하여 은행과 업무제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Manulife는 VietinBank 고객에게 16년간 방카슈랑스 독점 제공 제휴를 맺었으며, FWD Vietnam Life도 Vietcombank 고객에게 15년간 방카슈랑스 상품을 제공하는 제휴계약을 체결함

〈표 11〉 베트남 생명보험산업 판매채널별 수입보험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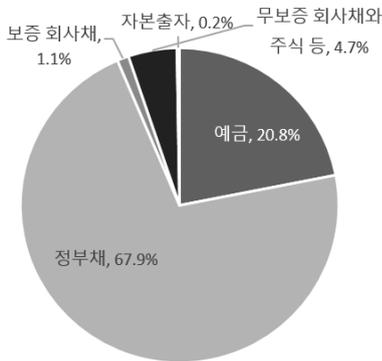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직판(TM·DM 등)	3	3	3
보험중개인	3	3	3
보험설계사	79	78	77
방카슈랑스	15	16	17
인터넷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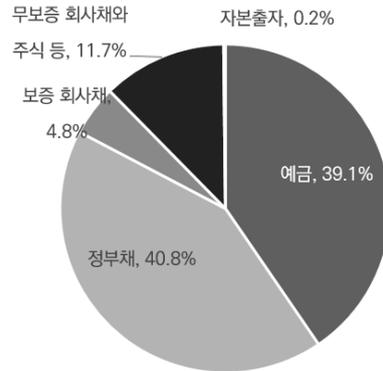
자료: AXCO(2022),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국채와 예금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는 등 안전자산에 편중되고 있음
 - 2021년 자산운용 구성비는 정부채(40.8%)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예금(39.1%), 무보증 회사채와 주식 등(11.7%), 보증부 회사채(4.8%), 자본출자(0.2%) 순임
 - 다만, 2016년 대비 2021년에는 예금과 회사채·주식 등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정부채 비중은 감소하였음

〈그림 2〉 2016년 생명보험산업 자산운용 구성비



〈그림 3〉 2021년 생명보험산업 자산운용 구성비



자료: 베트남 금융감독국(2017), "THE ANNUAL REPORT 2016" 자료: 베트남 금융감독국(2022), "THE ANNUAL REPORT 2021"

7. 손해보험시장 현황

- 2021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59.1조 동 규모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10.8%임
 - 수입보험료가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성장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부터 성장이 둔화되는 등 최근 손해보험 수요가 정체되고 있음
- 2021년 손해보험 총자산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약 10.9조 동 규모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10.7%임
 - 총자산 증가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둔화되고 있음

〈표 12〉 베트남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추이

(단위: VND bil., %)

구분		2015	2017	2019	2021	연평균 증가율
수입보험료	금액	31,891	41,594	53,366	59,135	10.8
	전년 증가율	15.9	12.8	13.6	4.3	
총자산	금액	59,127	75,640	92,331	109,085	10.7
	전년 증가율	16.6	13.7	9.8	9.6	

자료: 베트남 금융감독국(2016), "THE ANNUAL REPORT 2015"; 베트남 금융감독국(2022), "THE ANNUAL REPORT 2021"; AXCO(2022),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 손해보험산업은 전체 32개 손해보험회사 중에서 CR5가 53.2%로 생명보험산업 CR5(78.1%)보다 시장집중도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 손해보험산업의 CR5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시장집중도가 개선되고 있음
- 회사별 시장점유율은 Bao Viet(15.1%), PVI Insurance(14.0%), PTI(9.9%), Bao Minh(7.6%), MIC (5.7%) 순이며, 기타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46.3% 수준임

○ 베트남 손해보험시장은 PTI를 제외할 경우 정부가 최대주주인 정부계 내국사가 주도하고 있음

- 상위 5개사 중에서 PTI를 제외한 4개사(정부 또는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약 4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호주, 싱가포르, 대만, 일본 자본이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하고 있으며, 한국계 손해보험회사의 베트남 시장점유율은 11.9%(VBI 포함 시 15.8%) 비중을 차지함
 - 한국계 손해보험회사는 PTI(2015), Samsung Vina(2002), VBI(Vietinbank Insurance, 2018년 현대해상 지분참여), Seoul Guarantee Insurance(2014) 등이고, 이외에도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이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 도쿄해상은 전술한 Bao Viet Tokio Marine Insurance(BVTM, M/S 1.3%)의 출자 지분을 1996년 49%에서 2016년 51%로 확대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등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음

7) PTI(Post Telecommunication Join Stock Insurance Corporation)는 국영기업인 베트남우정공사(VNPost)가 출자하여 설립된 업계 3위의 우체국 기반의 손해보험회사로 우리나라 동부화재가 지분 일부를 인수하여 2015년에 최대주주가 되었음

〈표 13〉 베트남 손해보험회사 시장 점유율과 집중도

(단위: VND bil., %)

순위 (2021)	회사명	2019		2020		2021	
		수입보험료	M/S	수입보험료	M/S	수입보험료	M/S
1	Bao Viet	10,297	19.3	9,692	17.1	8,949	15.1
2	PVI ¹⁾	7,297	13.7	7,410	13.1	8,291	14.0
3	PTI	5,693	10.7	5,959	10.5	5,836	9.9
4	Bao Minh	3,881	7.3	4,295	7.6	4,496	7.6
5	MIC	2,332	4.4	3,157	5.6	3,932	5.7
8	VBI ¹⁾	1,892	3.5	2,069	3.7	2,307	3.9
17	Samsung Vina ¹⁾	1,074	2.0	1,006	1.8	1,105	1.9
32	SGI ¹⁾	29	0.1	31	0.1	28	0.1
전체	보험료	53,366	100.0	56,677	100.0	59,135	100.0
CR3		43.7		40.7		39.0	
CR5		55.4		53.9		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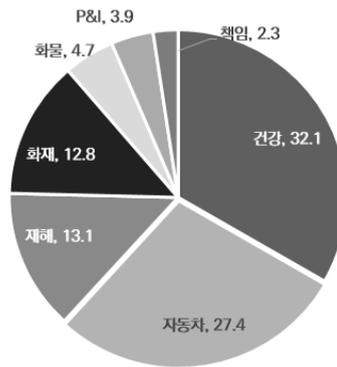
주: 1) PVI, VBI, Samsung Vina, SGI는 한국계 보험회사임
 자료: 베트남 금융감독국(2022), "THE ANNUAL REPORT 2021"

○ 상품별 수입보험료 비중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14〉 손해보험산업 주요 상품별 수입보험료
(단위: VND bil.)

구분	2020	2021
건강	18,266	18,954
자동차	17,308	16,227
재해	7,276	7,758
화재	6,447	7,586
화물	2,264	2,751
P&I	2,068	2,342
책임	1,101	1,341
기타	1,947	2,176

〈그림 4〉 손해보험산업 주요 상품 구성비
(단위: %)



자료: 베트남 금융감독국(2022), "THE ANNUAL REPORT 2021" 자료: 베트남 금융감독국(2022), "THE ANNUAL REPORT 2021"

- 2021년 수입보험료 기준 손해보험 상품별 비중은 건강보험(32.1%), 자동차보험(27.4%), 재해보험(13.1%), 화재보험(12.8%), 화물보험(4.7%), P&I(3.9%), 책임보험(2.3%) 순임
- 반면, 항공보험(1.8%), 신용보험(1.3%), 사업휴지보험(0.4%), 농업보험(0.1%), 보증보험(0.05%) 비중은 낮은 수준임

- 최근 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라 건강보험의 비중이 전년 대비 3.8% 증가한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봉쇄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이 전년 대비 6.2% 감소함

○ 판매 채널별 수입보험료 비중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보험회사의 임직원 순으로 높음

- 수입보험료 비중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각각 45%, 26%, 23%인 반면, 방카슈랑스와 인터넷 비중은 각각 5%, 1%에 불과함
 - 대리점의 판매 비중은 보험대리점과 보험대리점에 소속한 보험설계사의 판매 비중을 포함함
 - 베트남은 정부계 손해보험회사가 많고, 기업 고객에서 국영·공기기업의 비중이 크므로 보험회사의 임직원의 판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방카슈랑스와 인터넷의 판매 비중이 낮지만 방카슈랑스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뱅킹에서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가 2020년에 시행됨에 따라 최근 보험회사와 은행 간의 방카슈랑스 업무 제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임
- 현재 방카슈랑스를 제공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는 Bao Viet(Bao Viet Bank), PJICO(Vietcombank), BIC(베트남투자개발은행), Incombank Asia(Incombank), VASS(Sacombank), Bao Long(Asia Commercial Bank), Mitsui Sumitomo Insurance(Standard Chartered Bank) 등임

〈표 15〉 베트남 손해보험산업 판매채널별 수입보험료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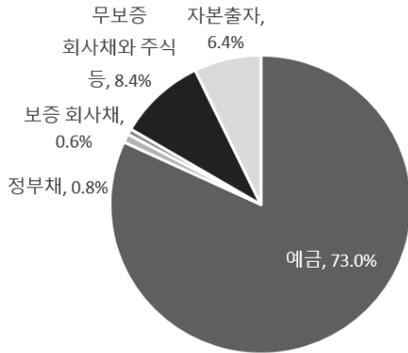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보험회사 임직원	24	24	23
보험중개인	26	26	26
보험대리점	46	45	45
방카슈랑스	3	4	5
인터넷	1	1	1

자료: AXCO(2021),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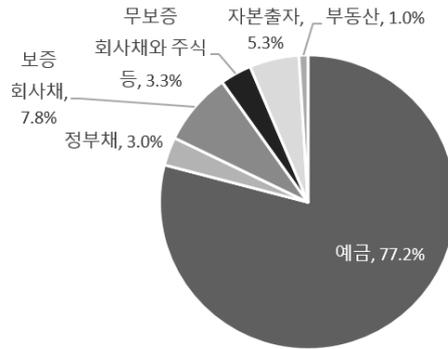
○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생명보험산업과 달리 예금 비중이 약 77.2%를 차지함

- 2021년 자산운용 구성비는 예금(77.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증부 회사채 등(7.8%), 자본출자(5.3%), 무보증 회사채(3.3%), 정부채(3.0%), 부동산(1.0%) 순임
- 2016년 대비 2021년에는 예금과 보증부 회사채, 부동산, 정부채의 운용 비중이 증가한 반면, 무보증부 회사채, 자본출자 운용 비중은 감소하였음

〈그림 5〉 2016년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구성비



〈그림 6〉 2021년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구성비



자료: 베트남 금융감독국(2017), "THE ANNUAL REPORT 2016" 자료: 베트남 금융감독국(2022), "THE ANNUAL REPORT 2021"

I

해외 보험산업 제도 현황

1. 미국 원격의료법 확대 유지 움직임

요 약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에 한해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 조건이 면제되거나 완화돼 동 서비스 이용률이 급증하였음. 미국 연방·주(州) 정부는 팬데믹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원격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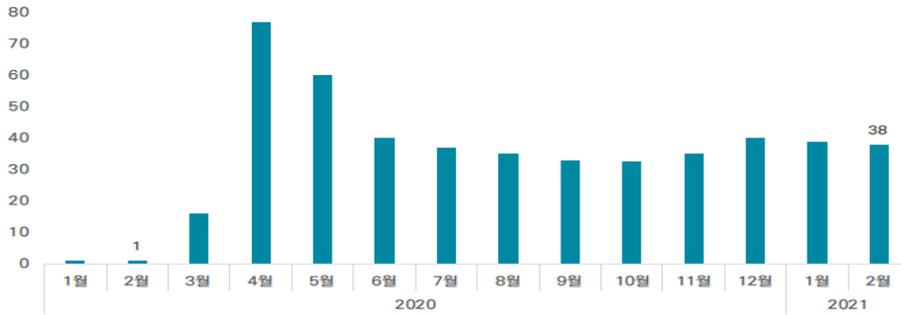
- 미국의 원격의료는 1940년대에 시작되었으나¹⁾ 널리 활용되진 않았는데,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시작되며 원격의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²⁾
 - 팬데믹 이전 원격医료를 활용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1970년대 IHS(Indian Health Service)와 NASA 간 파트너십을 맺어 시작된 프로젝트를 들 수 있음
 - 이를 통해 애리조나의 보호 구역에 있는 인디안 원주민과 우주에 있는 비행사에게 의료 서비스가 제공됨
 - 팬데믹 초기인 2020년에 원격의료 이용이 급증하기 시작해 2021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235억 달러였으며, 2022년 동 시장 규모는 3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³⁾
 - 2021년 2월 기준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38배 높았음(〈그림 1〉 참조)

1)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전화선을 통해 24마일 떨어진 두 마을 간 방사선 사진들을 전송한 것이 원격의료의 시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NAIC(2022. 9), "TELEHEALTH"

3) McKinsey(2021. 7), "Telehealth: A quarter-trillion-dollar post-COVID-19 reality?"

〈그림 1〉 미국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 건수 추이



주: 2020년 2월의 이용 건수를 1로 하였음

자료: McKinsey(2021. 7), "Telehealth: A quarter-trillion-dollar post-COVID-19 reality?"

○ 이는 연방 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법안을 통해 기존의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 조건을 완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동 서비스 이용을 장려했기 때문임

- 팬데믹 이전에는 정부와 민간보험회사 모두 원격의료 접근 용이성 제고가 의료 서비스 이용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을 우려해 원격의료 제공 확대에 미온적이었음
- 코로나19로 인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연방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모든 Medicare 가입자가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가 주(州) 경계선을 넘어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격의료 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확대함(표 1) 참조
 - 이전에는 농촌 지역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Medicare 가입자 등 대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음
- 또한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농촌 및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1,900만 달러 이상 투자했으며, 미국 농무부(USDA)는 원격의료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에 4,2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

〈표 1〉 팬데믹 기간 원격의료 서비스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법안 통과 시기	해당 법안	관련 내용
2020년 3월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공중 보건 비상사태 시 원격의료의 의료 보장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면제 권한을 제공함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CARES) Act	Medicare 가입자에게 농촌 지역 의료 업체 등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범위를 넓힘

〈표 1〉 계속

법안 통과 시기	해당 법안	관련 내용
2020년 12월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21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원격의료보험 적용범위를 영구적으로 확대하고, 의료보험 가입자가 가정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2022년 3월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22	공중 보건 비상사태 종료 선언 후 약 5개월(151일) 동안 동 사태와 연계됐던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 조건 면제 및 완화 조치를 연장함

자료: KFF(2022. 5. 23), "FAQs on Medicare Coverage of Telehealth"의 자료를 재구성함

- 연방 정부의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 조건 완화 조치는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 종료와 함께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동 완화 조치를 한시적으로 연장함
 - 2022년 3월에 통과된 법안(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22)은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 조건 완화 조치를 활용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보험회사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된 후에도 약 5개월간(151일) 동 완화 조치가 지속되도록 함
 - 최근 미국 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2024년까지 동 면제 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the Advancing Telehealth Beyond COVID19 Act of 2022)을 통과시키며 원격의료 이용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함

- 한편,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주(州) 정부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 종료 선언과 관계없이 원격의료 서비스 공급이 대면의료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원격의료 동등법(Telehealth Parity Laws)을 제정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원격의료 동등법은 크게 ① 대면의료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가 원격医료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서비스 동등법'과, ② 대면의료 서비스와 동일한 비율의 보험금이 원격医료를 통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불 동등법' 2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서비스 동등법'에 대해서는 연방 및 주 차원에서 크게 이견이 없으나, '지불 동등법'에 대해서는 32개 주가 동 법을 제정한 한편, 18개 주는 제정하지 않으며 주(州)별로 상이한 입장을 보임
 -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지불 동등법'을 제정하지 않은 주(州) 중 하나로, 동 법은 원격의료 남용의 결과를 낳아 비용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원격의료 서비스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낮은 비율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임

2. 베트남 신 보험업법(New Insurance Business 2022) 시행 예정⁴⁾

요 약

베트남에서는 2023년 1월부터 보험증권에 관한 원칙, 의무보험, 임시보험, 투자, 아웃소싱, 온라인채널을 통한 판매, 보험대리점, 자본적정성비율, 지급준비금, 외국인 소유한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신 보험업법이 시행됨. 새로운 보험업법은 장기적으로 베트남 보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정부는 2022년 6월 현 보험업법(이하, ‘현행법’이라 함)을 대대적으로 개정한 신 보험업법⁵⁾(이하, ‘신법’이라 함)을 통과시킴⁶⁾
 - 베트남의 현행 보험업법은 2000년 시행된 이래 2010년과 2019년에 각각 개정된 바 있음
 - 베트남 정부는 보험업법 선진화를 위해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신법은 2022년 6월 16일 베트남 국회의원 94.2%의 찬성으로 통과됨

- 신법은 보험업법의 적용대상과 보험업 운영에 관한 조항 157개를 담고 있음
 - 신법의 적용 대상은 보험회사,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 보험 관련 부가서비스 제공자, 상호미소보험회사, 외국 손해보험회사 지점, 외국 재보험회사 지점, 외국 (재)보험회사 대표사무소, 외국 보험중개사 대표사무소, 외국 금융 및 보험그룹 대표사무소, 보험계약자/보험구매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정부 감독기관, 기타 보험업 관련 기관 및 개인임
 - 신법은 보험업에 참여하는 조직·개인의 권리와 의무, 감독기관에 관한 조항을 포함함
 - 신법은 사회보험, 건강보험, 예금보험 및 베트남 정부가 시행하는 공적·사회보험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음(단, 상업적 목적으로 베트남 정부가 시행하는 보험분야에는 적용됨)

- 신법은 현행법 대비 보험증권에 관한 기본원칙과 보험증권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함
 - 현행법에서도 보험회사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 피보험이익, 면책, 대위가 관행적으로 사용되지만 신법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됨
 - 신법은 보험증권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의 목적, 보험가입금액(혹은 보험에 가입된 재물의 가치), 보장 범위(혹은 보험금), 보험 규정·약관(혹은 조건),

4) Baker McKenzie(2022. 6), “Vietnam: New Insurance Business Law”

5) No.08/2022/QH15

6) <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80807&Type=eDaily>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기간 및 보험증권의 효력발생일, 보험료, 보험료 지급 방식,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기한 및 지급방식, 분쟁 해결을 포함함

○ 신법은 의무보험에 관한 내용을 추가·변경함

- 현행법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법률자문역이나 보험중개인으로 일하는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했으나, 신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제외됨
- 신법은 의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가입 자격이 있는 조직·개인을 대상으로 보험판매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함

○ 신법은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에 대한 내용을 도입함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를 받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이를 임시보험 형태로 보장해야 함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는 임시보험의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조건을 합의할 수 있음

○ 신법은 베트남 보험회사가 외국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적용하는 규정을 완화함

- 신법에서는 베트남 보험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외국계 회사가 반드시 보험회사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
 - 외국의 금융 및 보험회사 내에 보험업을 수행하는 기관(Entity)이 있다면 베트남 보험회사에 투자할 수 있음
 - 이는 외국계 기업이 베트남 보험회사에 자본을 출자하거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음을 뜻함

○ 신법은 아웃소싱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며 적용범위와 제약사항에 관해 명시함

- 신법은 베트남 (재)보험회사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위탁기관과 협상·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베트남 보험회사가 아웃소싱할 수 없는 예외 업무는 '내부통제, 내부감사, 위험관리, 보험상품 제공, 보험계약에 관한 준비 업무(Arrangement)'로 제한되며 그 밖의 활동은 아웃소싱이 가능함
- 아웃소싱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은 (재)보험회사에 있으며 아웃소싱에 관한 내용은 (재)보험회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외부 위탁기관은 아웃소싱되는 작업량의 최소 75%를 수행해야 함

○ 신법은 온라인채널을 통한 보험판매에 관해 명시함

- 온라인채널을 통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개인은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지점,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미소보험회사(Micro-insurance companies)임
- 보험회사가 IT 기술 사용을 위해서는 시행 예정인 신법 외에도 IT 사용에 관한 기타 법령을 준수해야 함
 - IT 사용 관련 기타 법령이란 전자거래법, 정보통신법, 사이버보안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의미함

- 신법은 보험대리점의 운영원칙,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기존에도 보험대리점의 운영원칙,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 수준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신법은 이를 법령 수준으로 개편함
 - 신법에 따라 보험대리점은 각 보험분야에 맞게 생명보험 대리점, 손해보험 대리점, 건강보험 대리점으로 라이선스를 분리하여 보유해야 함
 - 신법이 발효되는 2023년 1월 이전 라이선스를 취득한 보험대리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가 없으나 그 이후에는 법령에 따라 보험대리점 라이선스를 새로 취득해야 함

- 신법은 자본적정성비율, 지급준비금, 외국인 소유한도 등에 관해서도 명시함
 - 신법은 RBC(Risk Based Capital)에 의거하여 자본적정성비율을 책정하고 있으며 RBC는 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기타 리스크를 포함하여 산정됨
 - 지급준비금은 보험의 목적이 베트남 현지에 있는 보험계약건과 외국에 있는 경우를 각각 분리하여 운영되어야 함
 - 베트남 (재)보험회사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는 현지회사의 정관 자본금(Charter capital⁷⁾)에 대해 최대 100%까지 지분을 소유하거나 납입자본(Contribute capital)을 출자할 수 있음
 - 이 밖에도 신법은 보험회사의 정보 공개, 분쟁해결기관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음

- 신법은 2023년 1월 발효될 예정이며, 베트남 보험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됨
 - 베트남 신법은 현행법 대비 많은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 베트남 보험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신법은 2023년 1월 발효되지만 RBC 등 일부 조항은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2028년 시행될 예정임

7) 정관 자본금이란 베트남에서 회사 설립 시 구성원에 의해 지불되었거나 혹은 지불하기로 약속된 자산의 전체 가치를 의미함. 이 같은 금액은 절차에 따라 법인등록일 기준 90일 이내에 반드시 법인계좌에 납입되어야 함

〈표 2〉 베트남 신 보험업법(신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대상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은 보험회사,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 보험 관련 부가서비스 제공자 등임 • 적용범위는 민영보험 분야이고, 사회보험, 건강보험, 예금보험 및 베트남 정부가 시행하는 공적·사회보험 분야는 제외됨
보험증권에 관한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증권의 기본원칙으로 신의성실, 피보험이익, 면책, 대위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됨 • 보험증권에 포함될 내용으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됨
의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서 법률자문역이나 보험중개인으로 일하는 경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했으나, 신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제외됨 • 신법은 의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가입 자격이 있는 조직·개인을 대상으로 보험판매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함
임시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를 받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이를 임시보험 형태로 보장해야 함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보험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외국계 회사는 반드시 보험회사일 필요가 없음
아웃소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법은 베트남 (재)보험회사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위탁기관과 협상·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베트남 보험회사가 아웃소싱 할 수 없는 예외 업무는 ‘내부통제, 내부감사, 위험관리, 보험상품 제공, 보험계약에 관한 준비 업무(Arrangement)’로 제한되며 그 밖의 활동은 아웃소싱이 가능함
온라인채널을 통한 보험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채널을 통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개인은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지점,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미소보험회사(Micro-insurance companies)임 • 보험업계가 IT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예정인 신법 외에도 IT 사용에 관한 기타 법령을 준수해야 함
보험대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도 보험대리점의 운영원칙,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 수준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신법은 이를 법령 수준으로 개편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법은 자본적정성비율, 지급준비금, 외국인 소유한도 등에 관해서도 명시함

자료: Baker McKenzie(2022. 6), “Vietnam: New Insurance Business Law”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함

3. 영국 국민보험 인하로 인한 영국 사회의 경제적 영향

요 약

영국의 국민보험 인상안이 취소됨에 따라 영국 근로자들은 2022년 11월부터 세금 감면에 따른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국민보험 인상 철회로 인해 국민보험 부채 감소 및 국가재정 감소 등 영국 사회 내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영국의 건강 및 사회 복지부담금의 비용 충당을 위해 1.25% 인상됐던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이 기업의 투자, 고용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취소됨
 - 영국의 국민보험은 영국의 16세 이상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의무적인 세금으로 국민보험을 통해 퇴직연금, 의료, 실업급여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됨⁸⁾
 - 소득이 12,570파운드 이상이고 16세에서 퇴직 연령 사이인 사람은 누구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며, 자영업자인 경우 연 소득이 6,725파운드를 초과하면 적용됨
 - 영국은 돌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해 1.25%의 건강 및 사회 복지 부담금(Health and Social Care Levy)을 부과하고자 했고, 인상분은 2022년 4월 6일부터 국민보험에 반영되었음⁹⁾
 - 영국에서는 노인 돌봄 및 거주지가 없어 퇴원할 수 없는 환자 문제 등 돌봄 문제가 심각했었음¹⁰⁾
 - 2022년 9월 22일 콰시 콰르텡(Kwasi Kwarteng) 당시 재무장관은 직전 재무장관인 리시 수낙(Rishi Sunak)이 발표했던 영국 국민보험의 1.25% 인상분을 11월 6일부터 취소할 것이라고 밝힘¹¹⁾
 - 콰시 콰르텡은 감세에 따른 높은 경제 성장을 통해 손실된 수입이 회복될 것이라는 입장이었음
- 영국 국민보험 인상이 취소됨에 따라 영국 근로자들은 추가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 영국 국민보험 납부 비율은 13.25%였고, 1.25% 인상분이 철회되어 12%를 납부하게 되며, 11월 급여명세서부터 세금 감면을 받기 시작해 2월에는 모든 영국 근로자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이 조치는 연간 12,570파운드(2022~2023년 자영업자의 경우 11,908파운드) 이상을 버는 약 2,800만 명의 개인에 대한 세금 감면을 제공함으로써 영국 전역의 개인 및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8) Real Business(2022. 10. 24), "How Is National Insurance Calculated And How Does It Affect Your State Pension?"

9) GOV.UK(2022. 9. 22), "Prepare for the Health and Social Care Levy"

10) Nottinghamshire(2022. 11. 7), "Workers to get pay boost as National Insurance rise reversed - how much will you receive"

11) Daily Record(2022. 9. 23), "National Insurance cut to take effect later this year, Tory Government announces"

- 근로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영국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약 330파운드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¹²⁾
 - 연 소득 2만 파운드의 경우 92파운드, 연 소득 10만 파운드의 경우 1,092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어 고소득자가 요율 전환의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표 3〉 참조)

〈표 3〉 영국 국민보험 인상 철회에 따른 소득 구간별 절약 금액

(단위: 파운드)

연 소득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현 NI	984	2,309	3,634	4,959	5,311	5,636	5,961	6,286	6,611
NI 인상 철회 후	892	2,092	3,292	4,492	4,719	4,919	5,119	5,319	5,519
연간 절감액	92	217	342	467	592	717	842	969	1,092

자료: The Times(2022. 10. 14), "Does the national insurance tax reversal mean I'll get a pay rise next month?"

○ 국민보험 인상 철회로 인해 임금 및 이익 증가, 다양한 거시경제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¹³⁾

- 2023년 4월부터 연금 수령 연령 이상의 근로자를 포함한 개인과 고용주는 더 이상 건강 및 사회 복지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경감됨
- 국민보험 세율 인하는 영국 내 950,000개 기업의 2022~2023년 과세 연도 국민보험 부채가 감소할 것을 의미함
 - 고용주의 국민보험은 2023~2024년 과세 연도 기준 평균 9,600파운드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보험을 지불해야 하는 약 160만 명의 고용주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 영국 정부의 경우 국민보험 인하, 건강 및 사회 복지 부담금 인상 계획 취소로 재정수입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¹⁴⁾(〈표 4〉 참조)

〈표 4〉 영국 국민보험 인상 철회에 따른 영국 정부의 재정적 영향

(단위: 백만 파운드)

구분	2022~2023	2023~2024	2024~2025	2025~2026	2026~2027
국민보험 1.25% 인상 철회와 건강 및 사회 복지 부담금 인상을 취소한 경우	-6,930	-16,955	-17,210	-17,685	-18,185
세제개편으로 인한 임금 및 이윤 증가로 인한 세율 상승	+860	+2,620	+2,720	+2,825	+2,935
국민보험을 일시적으로 1.25% 인상하고 건강 및 사회 복지 부담금 인상을 취소할 경우	-6,070	-14,335	-14,490	-14,860	-15,250

자료: GOV.UK(2022. 9. 23), "The Growth Plan 2022: docu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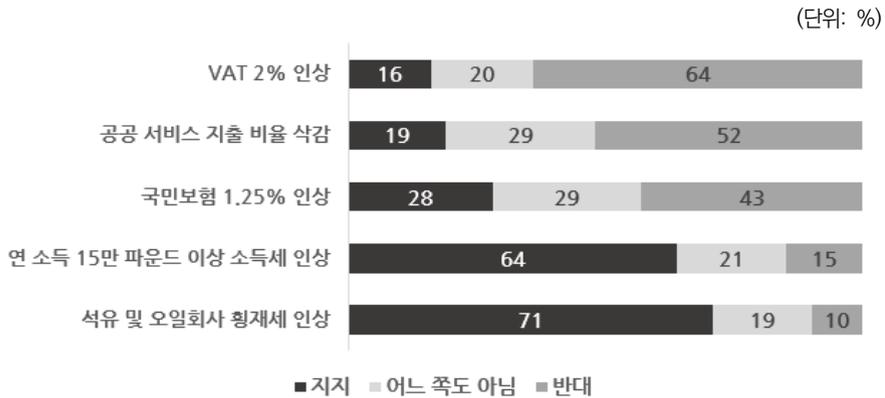
12) The Times(2022. 10. 14), "Does the national insurance tax reversal mean I'll get a pay rise next month?"

13) GOV.UK(2022. 9. 23), "Cancellation of the Health and Social Care Levy and in-year reductions in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rates"

14) GOV.UK(2022. 9. 23), "The Growth Plan 2022: documents"

- 국민보험 인상안에 대해 대다수 영국인들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유 및 가스회사,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세율 인상에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¹⁵⁾
 - 영국 입소스(Ipsos)의 설문 결과, 국민보험 1.25% 인상안에 대해 찬성 28%, 반대 43%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으며, 그 밖의 세금 인상 및 공공 지출 삭감 정책 대부분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응답자의 64%는 연 소득 15만 파운드 이상에 대한 최고 세율을 45%에서 50%로 높여 소득세 인상액을 늘리는 데 찬성하는 등 고소득자에 초점을 맞춘 세금 인상안은 지지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2〉 영국 국민보험 인상 및 정부 세금 정책 관련 인식



자료: Ipsos(2022. 11. 16), "Britons most oppose raising council tax and VAT ahead of Autumn Statement"

- 한편 새롭게 임명된 제레미 헌트(Jeremy Hunt) 재무장관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국민보험 인상 철회안을 제외하고 과시 콰르탕이 발표한 대부분의 감세 계획을 폐기함¹⁶⁾
 - 제레미 헌트 신임 재무장관은 파운드가 달러 대비 사상 최저치로 하락하고 모기지 금리가 12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는 등 연금 기금 위기를 막기 위해 2022년 10월 17일 전임자의 감세 정책을 취소함¹⁷⁾
 - 과시 콰르탕이 발표한 소득세 기본 세율 인하 계획 및 현재 45%의 소득세율을 납부하고 있는 연 소득 150,000파운드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추가 소득세율 폐지 방안을 모두 취소함

15) Ipsos(2022. 11. 16), "Britons most oppose raising council tax and VAT ahead of Autumn Statement"

16) Guardian(2022. 10. 17), "How will you be affected by the government's tax and NI changes?"

17) The Times(2022. 10. 20), "Hunt reverses almost all tax changes - here's how it affects you"

4. 스위스 노령유족보험(AHV)¹⁸⁾ 및 퇴직연금(BVG)¹⁹⁾ 개혁 동향

요 약

스위스 연금시스템 1층, 2층에 해당하는 노령유족보험(이하, 'AHV'라 함)과 퇴직연금(이하, 'BVG'라 함)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 유지를 위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음. 여성의 퇴직연령 및 부가가치세 상향 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금번 AHV 개혁안은 국민투표를 통과하여 개정될 예정임. BVG 개혁안의 핵심은 전환율, 연금가산금여, 조정공제액 및 연령에 따른 보험료를 조정에 대한 내용이며, 연방평의회 합의를 거쳐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 스위스에서는 연금시스템 1, 2층에 해당하는 노령유족보험(이하, 'AHV'라 함)과 퇴직연금(이하, 'BVG'라 함)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음
 - 은퇴 이후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AHV는 향후 20년 동안 연금수령자의 수가 1백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²⁰⁾ 2023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되었음²¹⁾
 - AHV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BVG 또한 기대수명 연장과 최근까지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인해 개혁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AHV 개혁안이 9월 25일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었으며, 이어서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BVG 개혁안을 발표하였음
 - AHV 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였던 여성의 연금수령 연령 상향조정안은 2004년, 2017년 부결된 바 있으나, 이번 국민투표에서 찬성 55.5%, 반대 49.5%로 통과됨
 - 2017년 AHV 개혁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한 BVG 개혁 또한 부결되었으나, 이번 AHV 개혁안 통과 이후 연방평의회는 BVG 개혁안을 발표하여 개혁을 추진함
- 이번 AHV 개혁의 목표는 2030년까지 재정 안정화를 이루는 것으로, 여성의 퇴직연령 및 부가가치세 상향 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²²⁾
 - AHV의 재원은 ① 사용자와 근로자(73%), ② 연방정부의 기금(20%), ③ 부가가치세 및 카지노 소득(7%) 등으로 구성됨

18) Alters- und Hinterlassenenversicherung

19) Bundesgesetz über die berufliche Alters-, Hinterlassenen- und Invalidenvorsorge

20) 2021년 기준 스위스의 총 인구수는 약 870만 명임

21) Schweizerischer Arbeitgeberverband(2019), "DIE AHV-RENTEN SIND TROTZ FINANZSPRITZE GEFÄHRDET"

22) Bundesamt für Sozialversicherungen BSV(2022), "AHV 21: Die Abstimmungsvorlage"

- 2021년 기준 총 연금적립금은 479억 7백만 프랑으로, 사용자 및 근로자는 약 351억 프랑, 연방정부 기금은 약 128억 프랑, 부가가치세 및 카지노 소득은 약 33억 프랑을 기록함
-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여성의 연금수령 연령은 남성보다 1년 일렀던 64세에서 2025년 남성과 동일한 65세로 상향조정됨
 - 2025년부터 1년 마다 3개월씩(2025년 64세 3개월, 2026년 64세 6개월 등) 연금개시 일시를 연장시켜 비로소 2028년 남성과 여성의 연금개시 연령이 동일해짐
 - 개혁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1961년부터 1969년생 여성들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62세에 연금을 개시하더라도 조기수령에 따른 삭감폭은 줄어들 예정임²³⁾
- 이와 더불어 현재 7.7%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8.1%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국민투표(찬성 55%, 반대 45%)를 통과함
- 동 개혁을 통해 연간 20억 6천만 프랑을 절약해 2030년까지 AHV의 재정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²⁴⁾

○ BVG 개혁안의 핵심은 전환율(Umwandlungssatz), 연금가산급여(Rentenzuschlag), 조정공제액(Koordinationsabzug) 및 연령에 따른 보험료를 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²⁵⁾

- 연방평의회가 발표한 BVG 개혁안에 따라 65세 은퇴 시 연금납입액 대비 1년 치 연금액으로 전환되는 최소 비율을 의미하는 전환율이 6.8%에서 6%로 하향 조정돼, 급여 수준이 낮아질 전망이다
 - 예를 들어 퇴직연금 적립액이 10만 프랑일 경우 연간 6,800프랑을 연금으로 수령해야 했으나 개혁으로 인해 해당 금액은 6,000프랑으로 낮아짐
- 그러나 개혁 이후 15년에 걸쳐 매월 추가 연금가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낮아진 급여 수준을 보완함
 - 개혁 이후 첫 5년 동안 신규 연금 수급자에게 200프랑, 다음 6~10년차는 150프랑, 11~15년차에는 100프랑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 가산급여는 매년 연방평의회에서 산출할 예정임
-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조정공제액을 현재의 25,095프랑에서 12,443프랑으로 하향조정할 예정임
 - 조정공제액은 퇴직연금 보험료를 산출하기 전 근로자의 세전 소득에서 연금시스템 1층에 해당하는 AHV 납부로 이미 보장된 금액분을 공제하는 금액으로, AHV, BVG의 중복보장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됨
 - 예를 들어 연간 6만 프랑 소득자는 소득에서 25,095프랑을 제외한 약 34,905프랑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개혁 이후 47,557프랑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 퇴직연금 납입액이 증가함

23)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63세에 연금을 수령할 시 기존 금액에서 13.6%가 삭감되나 해당 세대 여성의 경우 삭감률 7.7%가 적용될 예정임

24) CHSS(2022), "Welche Änderungen bringt die Stabilisierung der AHV (AHV 21)?"

25) Bundesamt für Sozialversicherungen BSV(2022), "Reform der beruflichen Vorsorge (BVG 21)"

- 또한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험료율이 연령대에 따라 상이하게 조정되어 25~35세 국민의 보험료율은 상승하지만 이후 세대의 부담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이전에는 25~34세는 7%, 35~44세는 10%, 45~54세는 15%, 55세 이상은 18%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었지만 개혁 이후 25~44세까지 9%, 45세 이상부터는 14%의 보험료율이 적용됨

〈그림 3〉 스위스의 연금제도



자료: swissinfo.ch(2022), "Wie es mit den Renten in der Schweiz jetzt weitergeht"

- 그러나 연방평의회는 BVG 개혁안은 아직 논의 중으로, 완성된 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5. 일본 보험회사 업무 범위 확대 보험업법 개정 주요 내용

요 약

최근 일본 금융청은 정부 산업 정책에 동참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을 포함한 관련 금융법을 개정함. 개정 보험업법에는 보험회사가 관련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회사 본체 업무에 컨설팅, 근로자 파견업무, 디지털 개발 및 판매, 헬스데이터 분석, 광고 및 마케팅, 고객 방문서비스업이 추가되고, 자회사 업무에 핀테크업, 지역상품 쇼핑몰, 디지털 개발 및 판매, 헬스데이터 분석, 광고 및 마케팅, ATM 유지관리, 고령자 후견인 상담 및 지원업이 추가되어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됨

- 일본 금융청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금융기능 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은행법 등 금융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험업법과 하위 법규를 개정하여 2021년 11월 22일에 시행하였음
 - 일본 정부는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²⁶⁾과 핀테크를 포함한 디지털화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일본 경제 재건 전략을 추진 또는 강화하고 있음
 -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등 금융업의 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²⁷⁾
 - 이에 일본 금융청은 은행법, 보험업법 등 16개 금융법 관련 법을 2021년에 일괄 개정하였음
- 개정 보험업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회사 본체·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 보험지주회사 업무 범위 확대, 보험회사의 그룹회사 경영관리 의무 신설, 전자적 청약철회 방법 신설 등임
 - 본 절은 보험회사 본체·자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한 개정 보험업법 주요 내용을 살펴봄
- 보험회사 본체²⁸⁾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에 ‘경영자원을 활용한 디지털화와 지역활성화,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업무 등’이 추가되었음
 - 주요 내용은 기존 보험업법 제98조 1~14에 열거된 업무 이외에, 신설 제98조 1항 15에 열거된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함

26) 일본 정부가 2014년부터 실시 중인 인구 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화로 인한 지방 공동화와 지역 소멸 현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정책으로 지방분권화를 핵심으로 한 기존의 지방정책과 차별화하고 있음

27) 金融庁(2021. 3),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等の影響による社会経済情勢の変化に対応して金融の機能の強化及び安定の確保を図るための銀行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説明資料 要約”

28) 일본 보험업상 보험회사 본체의 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법정 금융업무로 구분됨

〈표 5〉 보험회사 부수업무 관련 보험업법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제98조 1항(부수업무) 1~14(생략)	제98조 1항(부수업무) 1~14(생략) 15(신설) 해당 보험회사가 보유한 인재, 정보통신기술, 설비, 기타 해당 보험회사가 실시하는 보험업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업무로서 지역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기타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는 업무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자료: 金融庁(2021. 3),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等の影響による社会経済情勢の変化に対応して金融の機能の強化及び安定の確保を図るための銀行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新旧対照条文”

○ 보험업법 제98조 1항 15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규칙은 제52조의3의 3(지역활성화 등 업무)을 신설하여 〈표 6〉과 같이 상세한 부수업무를 제시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경영상담 등 컨설팅 업무, 근로자 파견업무, App·IT·DT(Digital Transformation) 서비스 설계·개발·판매 업무, 데이터 분석 및 광고·조사업무, 마케팅 업무, 계약 유지·관리를 위한 고객 방문 서비스 등의 업무가 추가됨

〈표 6〉 보험회사 지역활성화 업무 관련 시행규칙 신설 내용

신설 주요 내용 요약

제52조의3의 3(지역활성화 등 업무)(신설)

1. 다른 사업자 등의 경영에 관한 상담 실시, 다른 사업자 등의 사업자 또는 고객의 소개, 기타 정보 제공 및 조언과 관련된 사무 수탁(경영상담 등 업무)
2.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 및 근로자 파견 업무
3. 다른 사업자를 위한 IT 시스템 설계, 개발 또는 보수 또는 프로그램의 설계, 작성, 판매 또는 보수 업무
4. 다른 사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선전, 조사, 정보 분석, 정보 제공 업무
5. 해당 보험회사 이용자를 정기 또는 수시 순회방문을 하는 업무

자료: 金融庁(2021. 3),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等の影響による社会経済情勢の変化に対応して金融の機能の強化及び安定の確保を図るための銀行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政令の整備等に関する内閣府令案 新旧対照条文”

○ 보험회사 자회사 업무 범위²⁹⁾와 관련하여 개정 보험업법의 자회사 업무 범위에서도 ‘지역활성화,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업무 등’이 추가되었음(보험업법 제106조 1항 16호 개정)

- 주요 내용은 자회사가 디지털화와 지방 활성화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 전 ‘보험업 고도화 업무³⁰⁾ 또는 계약자 편의 지원업무’에서 개정 후 ‘지역활성화,

29)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자회사 업무는 종속업무, 금융 관련 업무, 투자전문업무(벤처캐피탈 유형으로 구분되며, 투자전문업은 신규 사업분야 개척회사(벤처기업), 사업재생회사로 구분됨. 금번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역활성화 사업회사가 신설됨

30) 보험업 고도화 회사란 2019년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개념으로 보험업법 제106조에 명시하는 바와 같이 ICT 기술을 활용

산업 생산성 향상 및 기타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가 예상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가 추가됨

〈표 7〉 보험회사 자회사 업무 관련 보험업법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제106조(보험회사 자회사 업무) 1항 1~15(생략) 16. 정보통신기술 및 그 밖의 기술을 활용한 해당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보험업 고도화 또는 해당 보험회사 이용자 편의 업무	제106조(보험회사 자회사 업무) 1항 1~15(생략) 16. 정보통신기술 및 그 밖의 기술을 활용한 해당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보험업 고도화 또는 해당 보험회사 이용자 편의 업무 또는 지역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및 기타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가 예상되는 업무 13항 제1항 제16호에 열거하는 회사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업무(신설)

자료: 金融庁(2021. 3),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等の影響による社会経済情勢の変化に対応して金融の機能の強化及び安定の確保を図るための銀行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新旧対照条文”

○ 개정 보험업법 시행규칙에서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에 ‘일정한 보험업 고도화 등 회사’ 개념을 도입 및 추가하는 한편 보험회사 종속업무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 회사의 인가 요건을 완화함

- 일정한 보험업 고도화 회사란 보험업 고도화 회사 중에서 ① 보험회사가 수행할 것으로 기대가 높은 업무와 ②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데 합리적이고, ③ 타 사업 리스크와 우월적 지위 남용,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현저한 우려가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기존 고도화 회사보다 인가 요건이 완화된 회사를 의미함³¹⁾
- 구체적으로 일정한 보험업 고도화 회사의 업무 내용은 장애인고용촉진법상 특례자회사, 핀테크업, 지역상사업(특정 지역 상품 유통 등), 근로자 파견업, App·IT·DT(Digital Transformation) 서비스 설계·개발·판매 업무, 데이터 분석 및 광고·조사업무, 마케팅 업무, ATM 유지관리·보수업무, 성년후견인 상담 및 지원 업무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하여 보험업무를 고도화하거나 계약자 편의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무를 하는 회사로 정의되며, 예컨대 IT와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나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등이 해당할 수 있음. 동 회사는 일반 사업회사이지만 보험업법 제106조 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인가 절차를 거쳐 의결권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음

31) 일정한 보험업 고도화 회사 개념 도입에 따라 나머지 보험업 고도화 회사는 타업 보험업 고도화 회사로 정의됨(개정 시행규칙 46조 1항 13호 4)

〈표 8〉 보험회사 자회사 업무 중 일정한 보험업 고도화 회사 관련 시행규칙 신설 내용

신설 주요 내용 요약
제57조의3(일정한 보험업 고도화 등 회사)(신설) 법 제106조 제4항, 제13항 및 제16항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회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회사와 장애인고용촉진법상 특례자회사로 한다.
1. 핀테크 업무
2. 지역 상사업무(직접 제조·가공은 제외) ¹⁾
3.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 및 근로자 파견 업무
4. IT 시스템 설계·개발·유지 보수, 프로그램 설계·작성·판매·유지 보수 업무
5. 다른 사업자를 위한 광고, 선전, 조사, 정보 분석 및 정보 제공 업무
6. 다른 사업자를 위한 ATM 유지 보수 업무
7. 성년후견제도 상담 및 성년후견인 업무 지원

주: 1) 중소기업기관 감독지침에서는 '지역상사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우수한 생산품·서비스 판로를 개척하여 수익을 내고, 지식과 수익을 생산자에게 환원해 나가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정의함

자료: 金融庁(2021. 3),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等の影響による社会経済情勢の変化に対応して金融の機能の強化及び安定の確保を図るための銀行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政令の整備等に関する内閣府令案 新旧対照条文

○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보험업법 제106조 1항 15에 명시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될 회사'의 요건을 신설하였음

- 핵심 요건은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가 추진 중인 지역 소상공인 등의 사업재생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비상장회사로 한정하고 있음

〈표 9〉 보험회사의 지역활성화 자회사 설립 요건 시행규칙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제56조(전문 자회사 업무 등) 1~7(생략)	제56조(전문 자회사 업무 등) 1~7(생략) 8(신설) 지역활성화 관련 자회사는 다음과 같이 비상장회사이고,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 ¹⁾ 의 사업재생 계획 작성에 관계하고 있는 회사 ①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출자한 회사 ②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목적의 회사로서 관공서, 상공회의소, 변호사, 컨설팅회사 등이 관여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을 실시하는 회사

주: 1)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재생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와 민간에 운영되는 기구로 소상공인과 금융회사로부터 상담 후 재생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작성한 사업재생 계획에 따라 소상공인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함

II

해외 보험산업 시장 현황

1. 미국 사이버 보험 시장 현황

요 약

미국에서는 사이버 공격의 증가로 사이버 보험 산업의 손해율이 악화됨에 따라 보험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동 보험의 가용성 문제도 제기됨에 따라 국가 사이버 보험 프로그램 생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많은 나라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 근무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유출로 인한 손실 비용이 증가했는데, 미국은 손실 비용 규모가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이었으며,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 또한 크게 증가함
 - IBM의 연구에 의하면, 2021년 데이터 유출로 인한 미국의 손실 비용은 905만 달러로 같은 해 세계 평균 손실 비용 424만 달러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¹⁾
 - 사이버 공격은 2021년에 전년 대비 98% 증가하였으며, 미국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에 미국 은행들이 신고한 랜섬웨어²⁾ 관련 거래 규모는 10억 달러 이상이었음³⁾
 - 2021년 5월 미국의 송유관 관리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Colonial Pipeline)⁴⁾을 향한 랜섬웨어 공격은 최근 발생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랜섬웨어 공격 중 하나로, 기능 복구에만 44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함

1) IBM Security(2022), 「2022년 데이터 유출 비용 보고서」

2) 사이버 공격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일컫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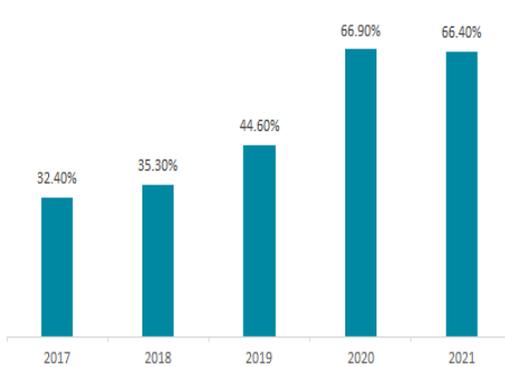
3) WSJ(2022. 11. 4), "Reported Ransomware Incidents, Costs Soared in 2021, Treasury Says"

4) 미국 동부 해안에서 소비되는 휘발유 및 디젤 연료의 약 45%를 운반하는 미국 최대의 송유관 관리업체임

○ 그로 인해 미국의 사이버 보험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동 산업의 손해율이 악화됨에 따라 보험료가 계속해서 증가해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함

- 2021년 미국의 사이버 보험 시장 규모는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 61% 성장한 반면, 2020년부터 손해율이 60%대를 기록하였음⁵⁾(〈그림 1〉 참조)
 - 2020년과 2021년 모두 사이버 보험 시장점유율(약 10%)이 가장 높았던 보험회사 Chubb Ltd.는 76.9%의 손해율을 기록함
- 미국 회계 감사원(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이하, 'GAO'라 함)의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 보험료가 팬데믹 이후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0년 4분기에는 전년 동 분기 대비 12% 증가함(〈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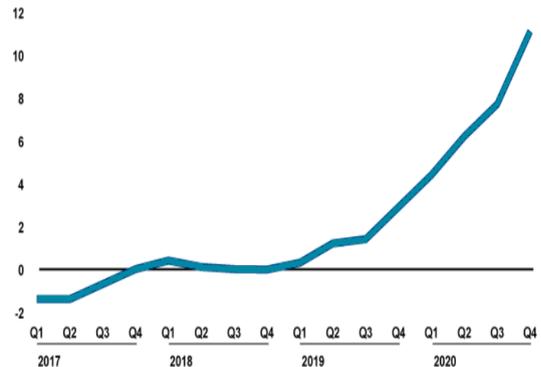
〈그림 1〉 사이버 보험산업 손해율 추이



자료: NAIC(2022. 10. 18), "Cyber Insurance report"

〈그림 2〉 사이버 보험료 증감률 추이

(단위: %)



자료: U.S. GAO(2021. 5. 20), "Cyber Insurance: Insurers and Policyholders Face Challenges in an Evolving Market"

○ 또한, 손해율 악화에 따라 사이버 보험의 보장 내용이 축소되고, 보험회사가 기업의 사이버 보안 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보험 인수 과정이 까다로워지면서 동 보험의 가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GAO의 2021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보험회사가 의료 기관과 같은 고위험 조직 및 산업에 대한 사이버 보험 보장 한도를 축소함
 - 의료 산업의 경우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해킹 등에 의한 개인 건강 정보 유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짐

5) NAIC(2022. 10. 19), "Cyber Insurance report"

- 보험회사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전쟁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제외' 항목을 적용시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도 있음
 - 대표적인 예로 2017년의 닛페트야(NotPetya) 사건은 60개가 넘는 나라에서 10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일으켰는데, 미국을 포함한 7개 국가에서 배후에 러시아 해킹 그룹이 있다고 공식 발표하자 취리히보험이 동 사건을 '전쟁과 흡사한,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였음
 - 주(州) 단위의 법 집행 기관에서 랜섬웨어에 대한 보험회사의 몸값 지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사이버 보험 인수에 더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됨
- 이에 민간 사이버 보험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GAO의 권고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국가 사이버 보험 프로그램 생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⁶⁾
- 미국 재무부는 2001년 9월 11일 미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 이후 만들어진 연방 테러 위험 보험 프로그램(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 이하, 'TRIP'라 함)을 사이버 공격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 어떻게 조정될 수 있을지 논의할 예정임
 - TRIP 모델은 정부가 지불할 수 있는 보상 금액으로 1,000억 달러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미국 국토안보부는 단일 사이버 공격 사건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대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한 연구 결과⁷⁾를 인용하며 동 모델의 한계를 지적함
 - 사이버 공격이 TRIP에서 정의하고 있는 테러 공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또한 홍수 보험과 같이 기존의 국가 보험 구조를 국가 사이버 보험 프로그램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국가 차원의 보험 대응이 기존의 민간 사이버 보험의 가용성 및 경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 동 프로그램 설립에 관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임
 - Swiss Re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⁸⁾를 통해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험 프로그램 설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한편 미국 손해보험협회(APCIA)는 기업의 인프라 레이아웃 검토, 정보 보안 프로그램의 주기적인 업데이트 등 기업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권장 사항 목록⁹⁾을 제공하며 이를 실행할 것을 촉구함

6) Bloomberg(2022. 9. 30), "National Cyber Insurance Mullied by Treasury Amid Risk Concern"

7) CISA(2022. 10. 26), "COST OF A CYBER INCIDENT: SYSTEMATIC REVIEW AND CROSS-VALIDATION"

8) Swiss Re(2022. 11), "Cyber insurance: strengthening resilience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9) APCIA(2022. 10. 25), "During Cybersecurity Awareness Month, APCIA Offers Best Practices to Help Businesses Protect Against Cyber Threats"

2. 싱가포르 Great Eastern사의 재발위험 보장 CI보험상품 출시¹⁰⁾

요 약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국적 보험회사인 Great Eastern은 중대질병에 대해 병의 재발을 포함하여 최대 세 번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CI보험상품을 출시함. 기대수명의 증가로 CI 진단과 재발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같은 상품으로 CI보험의 가입자 층 확대가 기대됨

- Great Eastern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다국적 보험그룹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보험에서 싱가포르 3대 보험회사에 속하는 그룹임
 - Great Eastern은 1908년 설립된 보험그룹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외에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중국, 미얀마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동 사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OCBC Bank¹¹⁾의 자회사로 약 1,000억 싱가포르 달러 (약 98조 원)의 자산과 약 1,050만 명의 보험계약자를 보유함
 - Great Eastern은 생명보험업을 하는 The Great Eastern Life Assurance Company Limited와 손해보험업을 담당하는 Great Eastern General Insurance Limited로 크게 구분됨
 - 동 사는 단체보험을 통해 현재 약 5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동 사는 중대질병 보장에 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고자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함
 - Great Eastern은 중대질병이 환자와 간병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CI보험에 대한 소비자 보장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CI 진단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두 번의 설문조사(2020년, 2021년)를 실시함
- 설문조사를 통해 CI 진단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의료비와 병원비, 소득 상실, 가족에게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지적함
 -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병이 재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5명 중 2명은 병의 회복과정에서 최소 12개월 동안 수입이 없었다고 응답함
 - 응답자 2명 중 1명은 질병 치료비와 병원비 부담이 가족에게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우려함
 - CI보험 가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49%는 높은 보험료를 보험가입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언급함

10) <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82476/Type/eDaily/Singapore-Great-Eastern-launches-CI-plans-with-recurrent-coverage>

11) OCBC Bank는 자산 기준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금융그룹임

- 이에 동 사는 CI 진단과 재발에 대해 최대 세 번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 두 가지를 출시함
 - 해당 보험상품은 모두 보험사고 발생 시 일시금을 지급하고, 옵션을 통해 병의 재발과 신규 CI 진단 시에도 추가적으로 두 번까지 보험금을 보장함(최대 세 번의 보험사고를 보장함)
 - 단, 보험금은 병이 재발한 경우 첫 진단 이후 재발 시기 등을 비롯한 여러 조건에 부합해야 지급됨
- 첫 번째 보험상품은 ‘Great Critical Cover: Top 3 CIs’로 CI 관련 3가지 병(암, 심장마비, 뇌졸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며 특약을 통해 최대 세 번의 보험사고를 보장함
 - 해당 상품은 병의 단계(초기, 중기 또는 중증 단계)에 관계없이 암,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의 진단에 대해 100% 일시금을 지급함
 - 보험계약자는 ‘Protect Me Again’이라는 특약을 통해 첫 번째 보험사고 이후에도 보장을 지속할 수 있음
 - 동 상품은 병의 재발 혹은 기존 진단 종목과 다른 질병으로 3대 중대질병(암, 심장마비, 뇌졸중)에 속하는 병에 걸린 경우 첫 번째 보험금 지급에 이어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보험금을 지급함
- 두 번째 보험상품은 ‘Great Critical Cover: Complete’로 CI 종목 53가지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며 특약을 통해 최대 세 번의 보험사고를 보장함
 - 해당 상품은 병의 단계(초기, 중기 또는 중증 단계)에 관계없이 중대질병 53가지 종목의 진단에 대해 100% 일시금을 지급함
 - 보험계약자는 ‘Protect Me Again’이라는 특약을 통해 첫 번째 보험사고 이후에도 보장을 지속할 수 있음
 - 동 상품은 병의 재발 혹은 기존 진단 종목과 다른 질병으로 53가지 중대질병에 속하는 병에 걸린 경우 첫 번째 보험금 지급에 이어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보험금을 지급함
- Great Eastern은 기대수명 증가로 CI 진단과 재발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신상품 출시를 통해 CI 보험의 가입자 층을 확대하고자 함

3. 영국 아마존의 보험 가격 비교 서비스 시작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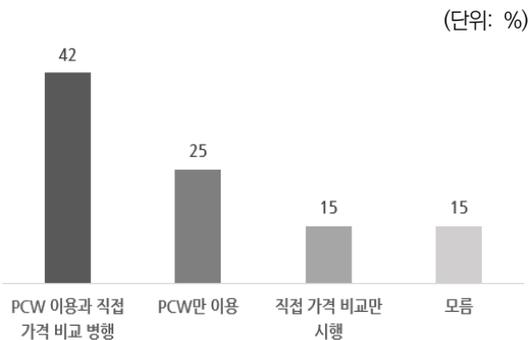
2022년 10월 19일 아마존 UK가 주택 보험 가격 비교 서비스인 아마존 인슈어런스 스토어를 출시하며 영국 보험시장에 진출함. 이러한 변화는 영국 소비자들의 비전통적 보험 판매 채널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아마존의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산업 벨류 체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아마존 UK는 2022년 10월 19일 주택 보험 가격 비교 서비스인 아마존 인슈어런스 스토어 (Amazon Insurance Store)를 출시하며 영국 보험시장에 진출함¹²⁾
 - 아마존 인슈어런스 스토어에서는 건물 보험, 내용물 보험, 건물 및 내용물 보험(결합 보험) 등 세 가지 유형의 주택 보험 상품을 제공하며 각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으로 함
 - 건물 보험은 건물의 물리적 구조(지붕 및 바닥과 같은 영구적 설비 및 주방 싱크대와 같은 부속품)를 보장하며, 내용물 보험은 귀중품, 가전제품 등 가정 내 소유물을 포함하며 도난과 파손을 보장함
 - 아마존 인슈어런스 스토어는 간소화된 설문지를 통한 가격 비교 및 기존 아마존 사이트와 통합된 결제 시스템 제공을 통해 고객의 주택 보험 구매를 간편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아마존 인슈어런스 스토어에서의 모든 주택 보험 상품들은 동일 수준의 보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므로 추가적인 항목에서 개인화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
 - 아마존 인슈어런스 스토어에서는 아마존의 보장 표준 및 서비스 품질 표준에 설명된 보장 표준인 Amazon Standard of Cover를 충족하는 주택 보험 상품만을 제공함
 - 건물 보험 정책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책임일 경우 200만 파운드까지 보장, 건물 누수 원인 파악에 대해 5,000파운드를 보장한다는 내용 등이 있으며, 내용물 보험 정책 중 홈오피스 장비의 경우 5,000파운드까지 보장하는 등 세부 정책들이 있음
 - 추가적인 선택 사항으로 사고 손상 보상, 정원(Garden) 커버, 학생 커버, 법적 조치 보장 등이 있음
- 영국 소비자들은 가격 비교 웹사이트(Price Comparison Website, 이하, 'PCW'라 함)를 통해 보험을 구매하고 있는 한편, 아마존 UK는 2023년 초 아마존 인슈어런스 스토어 플랫폼에 더 많은 보험회사를 추가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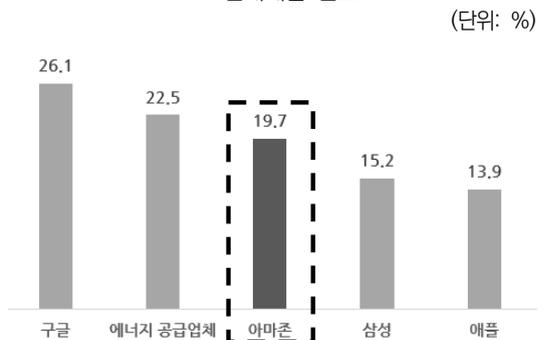
12) Amazon.co.uk(2022. 10. 19), "Introducing the Amazon Insurance Store—A New, Simple, and Convenient Way to Shop for Home Insurance"

- GlobalData¹³⁾에 의하면 2021년 영국 소비자의 약 30%가 가격 비교 웹사이트를 통해 주택 보험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남
 - Guidewir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¹⁴⁾ 2022년 5월 기준 영국 소비자들은 보험 상품 구매에 있어 최상의 보험 혜택을 얻기 위해 가격 비교 플랫폼을 활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70%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참조)
- 현재 Ageas UK, Co-op 및 LV=General Insurance의 세 보험회사와 제휴를 맺어 보험상품을 판매 중개하고 있으며, 2023년 초 보험회사들을 추가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임
 - 고객이 주택 보험 상품을 구매하면서 보험 상품에 대한 리뷰, 별점 및 클레임 수용률을 입력하도록 하여 많은 고객들이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그림 3〉 영국 소비자들의 주택 보험 구매 선호 방식



〈그림 4〉 영국 소비자들의 비전통적 주택 보험 판매채널 선호도



주: PCW(Price Comparison Websites)는 가격 비교 사이트임 자료: Life Insurance International(2022. 4), "Google offers the biggest threat to traditional home insurers among alternative providers"
 자료: Guidewire(2022. 6. 24), "The 2022 State of the UK Insurance Customer Attitudes Study"

○ 한편 아마존 UK는 2016년부터 다양한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영국 보험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음

- 2016년 아마존은 London General Insurance Company와 제휴하여 제품 보증 보험인 Amazon project를 제공했음¹⁵⁾
 - Amazon project는 주방·가전제품과 태블릿에 이르기까지 아마존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한 손상, 고장 및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며 구매 고객 리뷰 및 별점 시스템을 활용함

13) Insider Intelligence(2022. 10. 21), "Amazon's home insurance comparison tool expands its reach in the UK financial sector"

14) Guidewire(2022. 6. 24), "The 2022 State of the UK Insurance Customer Attitudes Study"

15) CBInsights(2017. 9. 21), "A Look At Amazon Protect: Amazon's Warranty Insurance Brand Expands In Europe"

- 2021년 아마존 UK는 영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인수어테크 기업인 Superscript와 제휴하였고, Business Prime¹⁶⁾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보험을 제공함¹⁷⁾
 - Business Prime 사용자는 아마존 계정을 사용하여 Superscript에 로그인하고 즉시 견적 비교를 시작할 수 있으며, 10분 이내에 공적 책임 보험, 고용주 책임 보험, 전문 손해 보험, 사이버 보험 등 기업 맞춤형 보험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영국 소비자들은 비전통적 보험 판매채널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어서 아마존 UK의 보험산업 진입은 영국의 주요 가격 비교 웹사이트(Price Comparison Websites; PCWs) 시장에 위협이 되고 있음
 - GlobalData가 2022년 4월 실시된 영국 보험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7%가 아마존에서 주택 보험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¹⁸⁾(〈그림 4〉 참조)
 - 아마존이 주택 보험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부터 영국 소비자들은 아마존을 통해 보험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개방적이라는 것을 의미함¹⁹⁾
 - 아마존 UK의 주택 보험 비교 사이트 출시를 발표한 날 가격 비교 웹사이트(PCWs)인 Go Compare, Money Supermarket 및 Compare the Market은 모두 주가가 3% 이상 하락함²⁰⁾
- 아마존 UK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통해 보험회사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험산업 벨류 체인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아마존 UK는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개 이상의 활성 고객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Ring doorbells, Alexa 음성 비서, iRobot 진공청소기를 포함한 ‘스마트 홈’ 제품들을 통해 잠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데이터가 보험회사에 기회 또는 위기를 제공할 수 있음
 - FCA는 아마존 UK가 추후 아마존 인수어런스 스토어 운영성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험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음²¹⁾
 - 다만, 보험회사의 인수 비용과 규제에 대한 부담은 아마존의 보험산업 진입 장벽으로 지적됨

16) 아마존 비즈니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비즈니스를 위해 설계된 멤버십 프로그램임

17) Superscript(2021. 9. 29), "Superscript teams with Amazon Business"

18) Life Insurance International(2022. 4), "Google offers the biggest threat to traditional home insurers among alternative providers"

19) Reinsurance News(2022. 10. 20), "Amazon a "serious threat" to UK price comparison sites"

20) Insurance Business(2022. 11. 1), "Amazon Insurance Store - who has the most to fear?"

21) FCA(2022. 10. 25), "The potential competition impacts of Big Tech entry and expansion in retail financial services"

4. 독일 장기요양보험 재정문제와 사적요양보험 의무화에 대한 논의

요 약

독일은 지속적인 법 개정 및 제도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수급권자 범위와 급여 수준을 확대해 왔음.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수요, 서비스 제공, 보험료율 측면의 변화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은 재정문제에 직면해있음. 이에 연방경제에너지부 자문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급여 항목 확대 지방 및 사적 요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독일은 지속적인 법 개정 및 제도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보험(Soziale Pflegeversicherung)의 수급권자 범위와 급여 수준을 확대해 왔음²²⁾
 - 독일은 이미 1991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노인 간병의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 형식의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함
 - 장기요양보험은 의료보험, 사고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다음으로 사회보험을 지탱하는 다섯 번째 기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독일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래 장기요양강화법 1, 2, 3 및 장기요양개혁 2021 등 후속적인 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개선해 왔음
 - 장기요양보험의 피보험자는 기동성, 인지 및 의사소통 능력, 행동 및 심리 문제, 자기부양 능력, 질병관리 능력,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활동 능력에 따라 요양등급을 부여받고 등급에 따른 급여를 받음
-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수요, 서비스 제공, 보험료율 측면의 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은 재정문제에 직면해있음²³⁾
 - 2040~2050년 사이 19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요양서비스 주요 수요층으로 자리 잡고, 8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7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9년 11.46%에서 2050년 17.02%로 늘어나고, 특히 8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9년 2.86%에서 2050년 6.6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노년기 높은 치매 유병률에 기인하여 전체 인구 대비 요양서비스를 받는 인구 비율은 2019년 4.95%에서 2050년 7.59%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반면 20~60대 인구 비율은 2020~2030년 사이에 4.9%p(52.7%→47.8%) 감소하고,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재가노인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드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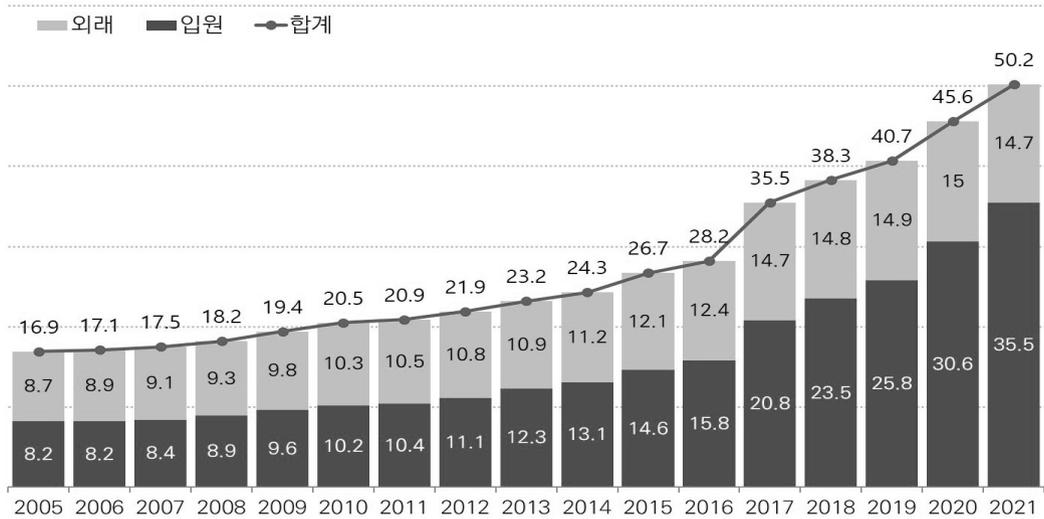
22) Portal-Sozialpolitik(2022), Chronik Pflegeversicherung

23)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2022), "Nachhaltige Finanzierungen von Pflegeleistungen"

- 이에 따른 전문돌봄인력에 대한 사회적 니즈의 증가는 돌봄인력에 대한 임금 상승 가속화를 견인함
- 보험금 지출은 2020년에서 2040년까지 약 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보험료율은 3.05% (2022년 기준)에서 2040년 최소 4.4%에서 최대 5.2%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 향후 20년 동안 법정 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회보험에 대한 총 보험료율이 49~53% 사이²⁴⁾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그림 5〉 장기요양보험 외래 및 입원비 보험금 지출액 추이

(단위: 십억 유로)



자료: VDEK(2022), "SPV - Leistungsausgaben in der ambulanten und stationäre Pflege"

- 연방경제기후보호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의 자문위원회는 세대 간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대한 합리성 제고와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급여 항목 확대 지양과 사적 요양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방안을 제시함²⁵⁾
 - 자문위원회는 현 제도를 유지 시 2040년까지 약 2%p의 보험료율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 항목 및 보장내역의 확대를 지양하기를 권고함
 - 또한 2030년 보험료율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요양준비기금(Pflegevorsorgefonds)²⁶⁾에 대한 적립률을 높여 선제적으로 보험료율을 좁은 폭으로 인상하기를 제안함

24) 현재 독일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은 약 38.65%(의료보험: 14.6%, 연금보험: 18.6%, 장기요양보험: 3.05%, 실업보험: 2.4%)이며, 사고보험의 경우 개개인의 리스크 노출도에 따라 보험료율이 상이함

25)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2022), "Nachhaltige Finanzierungen von Pflegeleistungen"

26) 장기요양강화법1을 통해 설립된 장기요양준비기금(Pflegevorsorgefonds)은 보험료율 상승을 통제하고 2035년까지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매년 장기요양 보험료 중 0.1%가 적립됨

- 이와 더불어 사회보험에 편입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피보험자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 요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요양시설돌봄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월간 자기부담비용은 2018년 평균 1,772유로에서 2020년 평균 2,068유로로 상승하였음²⁷⁾
 - 자기부담비용이 늘어날수록 피보험자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생산가능인구의 사적 요양보험 가입 의무화를 제안함
 - 이와 비슷한 사례로 독일은 2001년 국가 지원으로 사적연금 가입을 유인하는 공사연계연금 ‘리스트어연금(Riester-Rente)’을 도입한 바 있음

27) Handelsblatt(2021. 7. 9), “Wie viel ein Pflegeheim kostet und was der Staat zahlt

5. 일본 생명보험회사 간 보험상품 교차판매 최근 동향

요 약

최근 일본에서는 생명보험회사가 수익 다변화와 판매채널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 중인 타 생명보험회사에 보험상품을 공급하거나 위탁 판매하는 등 광의의 교차판매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상품 공급회사는 판로 개척을 통한 상품 공급처 다변화가 가능하며, 위탁 판매회사는 상품 라인업 확보를 통한 판매 수입 확대와 판매채널 효율성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음

- 최근 일본에서는 생명보험회사가 수익 다변화와 판매채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 중인 타 생명보험회사에 보험상품을 공급하거나 위탁 판매를 하는 업무제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주요 배경은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수입 감소 개선, 상품 개발과 판매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상품 라인업 보안을 통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 등에 보험회사가 빠르게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일본은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 자격으로 생·손보 교차판매를 시행하고 있어 이종회사 간 교차판매는 물론 생명(손해)보험회사가 타 생명(손해)보험회사에 상품을 위탁 판매할 수 있음
 - 2001년에 관련 법규²⁸⁾ 개정 시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에 타 보험회사의 보험모집 대리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이 되어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재위탁)의 사용인으로서 이종 또는 동종 보험회사 간 상품을 공급하거나 위탁 판매할 수 있게 됨
 - 2000년대 초는 생명·손해보험 교차판매가 중심이었으나 소액단기보험제도 도입으로 2010년대부터는 보험회사·소액단기보험회사 간 교차판매가 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생명보험회사 간 등 동종 보험회사 간, 모·자 회사 간 보험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설계사가 중심이 되어 이종회사 간의 교차판매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 본 절에서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생명보험 동종 보험회사 간 위탁 판매 사례를 제시함
- 최근 소니생명²⁹⁾은 메디케어생명³⁰⁾이 공급한 건강보험상품을 자사 판매채널에서 2023년부터 판매하는 업무제휴를 2022년 8월에 체결하였음³¹⁾

28)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1조

29) 소니생명은 외화기준 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소니그룹의 자회사로 주력 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판매채널의 효율성 확대를 위하여 자사의 건강보험 상품개발을 중지하는 대신 타 사의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하여 상품 라인업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30) 메디케어생명은 스미토모생명의 자회사로 여성 대상의 의료보험, 정기보험, 소득보장보험 등의 상품 공급을 중점으로 하는 회사이며, 자사의 보험설계사 조직이 없이 모 회사의 보험설계사와 GA채널, 타 사 판매채널, 빅테크, 가격비교 사이트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메디케어생명이 공급하는 보험상품은 무해약환급형 의료종신보험, 간편고지형 무해약환급 의료종신보험으로, 스미토모생명그룹 관계사가 경쟁 보험회사에 보험상품을 공급하는 것은 처음임
- 소니생명은 메디케어생명의 모집대리점이 되어 자사 약 5천 명의 라이프 플래너³²⁾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 수수료 수입을 통해 회사의 수익 다변화와 라이프 플래너의 소득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메디케어생명은 다양한 판매채널 확보를 통해 상품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상품 개발 전문회사로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이에 앞서 2019년 스미토모생명은 소니생명이 공급한 보험상품을 자사의 보험설계사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음

- 소니생명³³⁾에 의하면 감독당국의 인가를 거쳐 스미토모생명의 약 3만 명 보험설계사를 통해 소니생명의 외화기준 종신보험, 양로보험을 판매할 계획을 보도한 바 있음
- 스미토모생명은 외화기준 상품 제공에 의한 상품라인업 확충을 통하여 소비자 니즈 다양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기대하며, 소니생명은 외화기준 상품의 판로 개척을 통해 상품 공급의 안정성과 상품개발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함
 - 동 사의 소니생명 외화기준 상품 판매실적은 2022년 10월 누적기준으로 총 10만 건임
- 스미토모생명그룹과 소니생명은 경쟁력 있는 보험상품과 판매채널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보완관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 다변화와 판매채널 효율화, 전문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 라쿠텐(樂天)생명³⁴⁾은 네오퍼스트생명(다이이치생명 자회사)³⁵⁾이 공급하는 기업형 정기보험을 자사 영업채널을 통해 2018년부터 판매하고 있음³⁶⁾

- 네오퍼스트생명이 공급하는 상품은 라쿠텐 쇼핑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해보장형 정기보험으로 소상공인 임직원의 재해 사망 시 사망보장과 생존 시 해약환급금 보장이 가능한 상품임
- 다이이치생명그룹은 라쿠텐생명 판매채널에서 기업형 보험상품 판매를 시작으로 자사의 판매채널 혁신과 마케팅 강화, 사업혁신 등을 위하여 향후 라쿠텐그룹과 인프라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전략적 제휴 관계로 발전시킬 계획임

31) 메디케어생명(2022. 8. 26), “ソニー生命におけるメディケア生命の医療保険の取扱いに関する業務提携について”

32) 일본에서 보험회사에 고용된 직원인 영업직원을 편의상 보험설계사로 호칭함

33) Sony Life(2018. 7. 4), 住友生命におけるソニー生命の米ドル建保険の取扱いに関する業務提携について

34) 라쿠텐생명은 일본판 아마존 기업인 라쿠텐그룹의 자회사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 채널 전문 보험회사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추구하고 있음

35) 네오퍼스트생명은 다이이치생명 자회사로 30~40대 대상의 저가격·간편 건강보험상품 등의 상품 공급을 중점으로 영업하는 회사이고, 보험설계사 조직 없이 내점형 점포와 GA, 방카슈랑스, TM·CM 대리점(인터넷 쇼핑물 등)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36) 楽天生命(2018. 4. 23), “楽天生命保険と第一生命ホールディングスの業務提携について”

○ 스미토모생명은 2017년부터 NN생명이 공급하는 단체형 정기보험을 보험설계사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³⁷⁾

- NN생명이 공급하는 상품은 기업 임직원 대상의 정기보험(간병·장해 보장형 정기보험)과 중대질병보장 보험이며, 스미토모생명은 상품 라인업 확충을 통해 중소기업 니즈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이 가능해짐

○ AXA생명은 니혼생명과 보험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동 상품을 니혼생명 보험설계사 채널을 통해 2015년부터 판매하고 있음³⁸⁾

- 동 사업은 공동 개발한 간편고지·무해약환급형 종신의료보험을 AXA생명이 계약을 인수하는 사업임

〈표 1〉 일본 생명보험회사 간 보험상품 교차판매 사례

판매 연도	판매 생명회사		대상 상품	공급 생명회사	
	회사명	특징		회사명	특징
2023	소니생명	외화기준 보험 특화	종신의료보험 3종	메디케어 생명	스미토모 자회사로 여성 고객, 의료보험과 신판매 채널 특화
2019	스미토모 생명	일본 내 M/S 5위 회사	외화기준 종신·양로보험	소니생명	소니파이낸셜그룹 자회사
2018	라쿠텐 생명	일본 빅테크 라쿠텐의 자회사로 인터넷, 앱 판매 전문	기업형 정기보험	네오퍼스트 생명	다이이치의 자회사로 방카, 내점형 점포, 인터넷 등에서 저가격 건강보험 특화
2017	스미토모 생명	일본 내 M/S 5위 회사	기업형 정기보험	NN생명	단체형 상품 특화
2015	니혼생명	일본 내 M/S 1위, 보험설계사 채널 판매	간편고지·무해약 환급형 종신의료보험	AXA생명	AXA그룹 일본 자회사
2013	간포생명	민영화된 우체국보험, 79개 직영점포 보유	암보험	AFLAC 생명	미국계 회사로 일본 내 처음으로 암보험을 판매한 암보험 전문
	다이도생명	일본 내 M/S 6위 회사	기업형 암보험		

자료: 각사 홈페이지를 기초로 작성함

37) 住友生命(2018. 3. 1), “エヌエヌ生命の法人向け保険の住友生命での取扱い開始について”

38) アクサ生命(2015. 3. 20), “日本生命との業務提携について”

- 간포생명은 2013년부터 AFLAC생명이 공급하는 암보험을 자사의 직영점포에서 판매하고 있음³⁹⁾
 - AFLAC생명은 이미 2008년부터 민영화된 우정주식회사가 보유한 전국 1,000여 개 우체국을 통해 암보험 상품을 판매한 바 있는데 소비자의 기대 이상 호응에 따라 간포생명에서도 판매하기로 함
 - 동 사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보유한 우체국과 판매제휴 강화를 통한 암보험시장 규모 확대를 기대하며, 간포생명은 암보험 상품의 판매 수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간포생명은 자사의 17개 직영점포에서 AFLAC생명이 공급하는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한편, 일본 우정주식회사는 AFLAC그룹에 3천억 엔을 출자하여 지분 7%를 인수하는 등 향후 AFLAC 그룹에 지분 20%를 목표로 지배구조를 확대할 계획임

- 2013 다이도생명은 AFLAC생명이 공급한 기업 종업원복지형 암보험을 3,200명의 법인영업 보험설계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음⁴⁰⁾

39) 日本郵政株式会社(2013. 7. 26), “日本郵政株式会社とアフラックの業務提携について”

40) 大同生命保(2013. 9. 11), “大同生命保険とアフラックとの法人会におけるがん保険販売に関する業務提携について”

6. 중국 자율주행차 최근 동향과 보험회사의 대응 움직임

요 약

중국에서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는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 양산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중국 주요 도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관련 정책과 법규를 잇달아 마련하면서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 중국 보험감독당국은 자율주행차를 고려한 보험제도를 아직 마련하지 않았지만, 중국 대형 보험회사들은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자율주행차 보험상품을 개발함

- 중국에서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는 2021년까지 레벨3 자율주행차 양산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자율주행차 상용화 관련 법규 미비로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를 생산·판매하지 못하고 있음
 - 2021년 9월 중국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따라 자율주행차 등급을 발표하였으며, 중국 버전의 자율주행차 등급은 미국과 유사하게 레벨0부터 레벨5까지 비자동운전에서 완전 자동운전으로 구분됨
 - 레벨0부터 레벨2까지는 자동운전 기능이 없고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전을 주도하는 등급이며, 레벨3부터 레벨5까지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자동차의 운전을 주도하는 등급임

〈표 2〉 중국 버전의 자율주행차 등급분류

구분	주행 방향 제어 주체	감시 및 제어 주체	긴급상황 대응 주체	주행 환경
레벨0: 응급 보조(비자동운전)	운전자	운전자와 시스템	운전자	제한이 있음
레벨1: 부분 운전 보조	운전자와 시스템	운전자와 시스템	운전자	제한이 있음
레벨2: 조합 운전 보조	시스템	운전자와 시스템	운전자	제한이 있음
레벨3: 조건부 자동운전	시스템	시스템	운전자	제한이 있음
레벨4: 고도 자동운전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제한이 있음
레벨5: 완전 자동운전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제한이 없음

자료: 全国汽车标准化技术委员会(2021), “汽车驾驶自动化分级”(http://www.catarc.org.cn/xinwen/show-3334.html)

- 현재 중국 정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자율주행 기술 표준과 물리적(통신,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을 마련하였지만 법규 측면에서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주행을 여전히 허용하지 않았음
 - 2021년 레벨3와 레벨4 자율주행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제조사가 준수하는 지침, 자율주행차 주행에 필요한 도시교통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계획은 각각 발표되었으며,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법 초안은 이미 공개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음

-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 제조사 및 중국 본토 자동차 제조사는 대부분이 2021년까지 레벨3 자율주행차 양산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일반도로 주행 불허로 레벨2 자동차만을 생산·판매하고 있음

〈표 3〉 중국 시장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자율주행차 생산 계획

제조사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외국 제조사	BMW	L2			L3			L4	
	벤츠	L2			L3			L4	
	테슬라	L2		L3	L4				
	GM		L2				L4		
	포드	L2			L4				
	토요타		L2			L4			
	혼다	L2			L3				L4
	닛산	L2				L3			
	현대기아	L2			L3	L4			
중국 본토 제조사	상하이자동차	L2			L3				L4
	제일자동차	L2			L3				L4
	장안자동차	L2			L3				L4
	동풍자동차	L2			L3				L4
	베이징자동차	L2			L3				L4
	장성자동차		L2		L3		L4		

자료: 民生证券(2022), “深圳L3归责政策落地, 智能驾驶产业化提速”(https://www.google.com/url?sa=t&rc=j&q=&esc=s&source=web&cd=&cad=rja&uact=8&ved=2ahUKEwjlo6yMqeL7AhVW1GEKHUe1BPwQFnoECA8QAQ&url=https%3A%2F%2Fpdf.dfcfw.com%2Fpdf%2FH3_AP202207111576033128_1.pdf%3F1657533483000.pdf&usg=AOvVaw3VhQC9Gi13BnjReQboWZ47)

- 2022년 들어 중국 주요 도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관련 정책과 법규를 잇달아 마련하면서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
 - 2022년 4월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충칭, 우한 등 도시는 영업용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가 특정 지역과 시간에 유상 여객·화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각각 발표함
 - 중국의 포털 플랫폼인 바이두는 장안자동차와 함께 베이징, 충칭, 장샤, 우한, 양취안, 우진 등 6개 도시에서 운전자가 있는 자율주행차의 여객 운송업 영업 자격을 받음
 - 또한 충칭, 우한 등 2개 도시에서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여객 운송업 영업 자격을 취득함
 - 2022년 8~11월 중국 남부의 대외개방 도시 선전은 두 차례에 걸쳐 2023년 말까지 영업용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의 시내 일반도로 주행을 완전히 허용하기로 함

- 선전은 중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영업용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주행을 허용하였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부담 방법, 자동차보험 가입 유형 등과 같은 내용을 명시함
- 중국 지방정부가 영업용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의 시범 운영을 허용한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영업용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의 운송업 영업 지침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음
- 중국 교통운수부가 마련하는 '자율주행차의 운송업 서비스 지침'이 본격적으로 제정될 경우 현재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는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의 시범 운영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표 4〉 중국 선전의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 도로주행 허용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 정의	• 레벨3는 조건부 자동운전, 레벨4는 고도 자동운전, 레벨5는 완전 자동운전이며, 레벨3와 레벨4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필요하지만 레벨5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불필요함
도로주행 요구	• 도로교통관리기관에 등록된 모두 자율주행차량이 허용 지역에서 주행이 가능함
차량 규격 및 관리 요구	• 자율주행차 외부에 자율주행 상태를 표시하는 조명등을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개입의무가 있음. 자율주행차 제조사는 중대한 고장이나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술지원이나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가 있음
배상책임 부담 방법	• 운전자가 있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함.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소유자나 관리자가 배상책임을 먼저 부담하며 차량 결함이 있는 경우에 제조사 및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자동차보험 가입 유형	•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차는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함. 여객 운송 기능이 있는 자율주행차는 별도로 승객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도로 개방 계획	• 자율주행차의 주행 지역은 2022년 300km에서 2023년 말까지 시내 전체 일반도로까지 허용될 계획임

자료: 深圳市(2022), “深圳经济特区智能网联汽车管理条例” 및 “深圳市推进智能网联汽车高质量发展实施方案”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함

- 중국 보험감독당국은 아직 자율주행차를 고려한 보험제도를 마련하지 않았지만, 중국 보험회사들은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자율주행차 보험상품을 개발함
- 현재 중국 정부는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제도를 개정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영업용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제도를 수립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인민손해보험, 중국인수손해보험, 중국재보험 등 대형 보험회사들은 2017년에 자율주행차 개발사업자 바이두, 중국 보험학회 등과 함께 세미나를 통해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수립 및 상품개발을 논의함
-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일부 대형 보험회사들은 2021년부터 시범 운영 사업에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제조사와 함께 일반 자동차보험, 재산보험, 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패키지 상품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대해 맞춤형 보장을 제공함

- 일반 자동차보험은 자율주행 기능이 실행되지 않는 차량의 손실을 보장하며, 재물보험은 자율주행 기능이 실행되는 차량의 손실을 보장함
- 일반 배상책임보험은 운전자가 있는 자율주행차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며,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은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함
- 현재 중국태평양손해보험, 중국평안손해보험, 스위스재보험 등 3개 보험회사는 영업용 자율주행차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함
 - 중국태평양손해보험은 자율주행 트럭 제조사인 Boonray와 무인트럭보험, 중국평안손해보험은 무인 버스를 운행하는 PIX Moing과 무인버스보험, 스위스재보험은 자율주행 택시 개발사인 바이두와 무인택시보험을 개발함

7. 중국 반려동물 보험 시장 동향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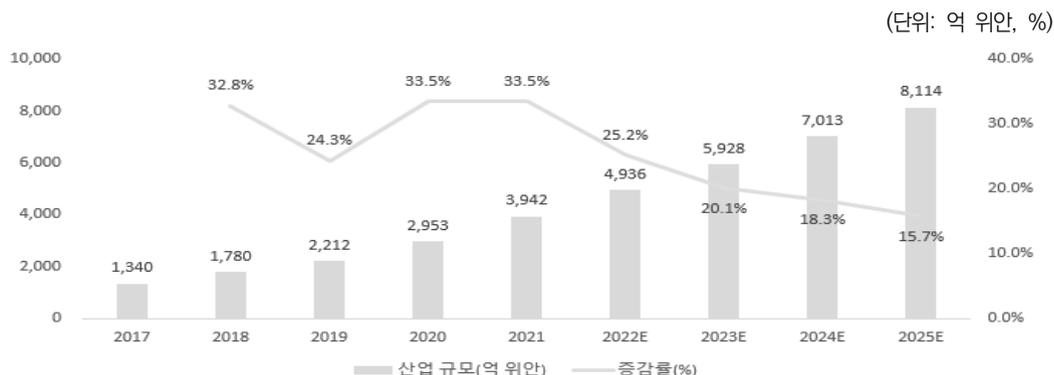
요 약

중국에서는 반려동물 의료보험과 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의 반려동물 보험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음. 중국 보험회사들은 반려동물 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보장 범위 확대, 간편한 보험금 청구 제도 도입, 저렴한 보험료, 온라인 채널 활용 등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 중임

○ 중국 iiMedia Research에 따르면, 2022년 중국 반려동물 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25.2% 증가한 4,936억 위안(약 92조 원)을 달성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⁴¹⁾

- 반려동물 산업은 반려동물 식품, 의료, 의류, 용품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상품에서 반려동물의 의식주, 생로병사를 포함하는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함
- 중국인의 국민 소득 증가,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질 뿐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소비지출 역시 확대되는 추세임
 - 2021년 반려동물 양육인의 월평균 수입을 살펴보면, 4천 위안(약 75만 원) 이상 1만 위안(약 187만 원) 미만인 46.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1만 위안 이상은 34.9%를 차지함
 - 2021년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를 살펴보면, 반려견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3천 6백만 가구이고, 반려묘는 전년 대비 19.4% 증가한 3천 2백만 가구임
- 2023년 반려동물 산업 규모는 5천 9백억 위안(약 11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며, 2025년에는 8천 1백억 위안(약 15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함

〈그림 6〉 2017~2025년 중국 반려동물 산업 규모 및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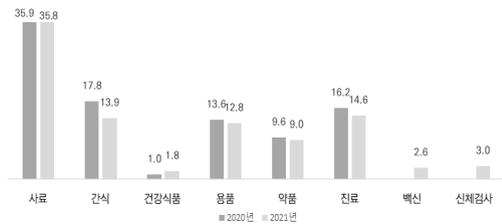
자료: 중국 iiMedia Research(2022), 「2022~2023 중국 반려동물 산업 발전 및 소비자 연구 보고서」

41) 중국 iiMedia Research(2022), 「2022~2023 중국 반려동물 산업 발전 및 소비자 연구 보고서」

○ 반려동물 산업의 품목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반려동물 진료 시장은 사료 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나, 반려동물 양육 시 비싼 진료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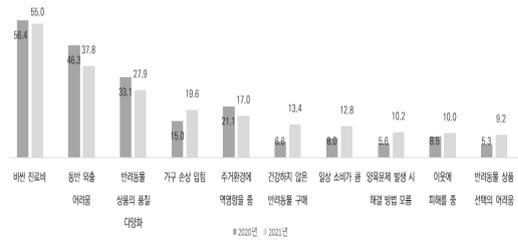
- 2021년 기준 반려동물 산업 품목별 소비는 사료(35.8%), 진료(14.6%), 간식(13.9%) 순서임
 - 2021년에는 백신 접종(2.6%), 신체 검사(3.0%)에 대한 소비가 새롭게 발생함
- 2021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시 어려움으로는 비싼 진료비(55.0%),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어려움(37.8%), 반려동물 상품의 품질 다양화(27.9%) 등을 응답함

<그림 7> 2020~2021년 반려동물 산업 소비 구조 (단위: %)



자료: 중국축산협회(2021), 「중국 반려동물 산업백서」

<그림 8> 2020~2021년 반려동물 양육 시 고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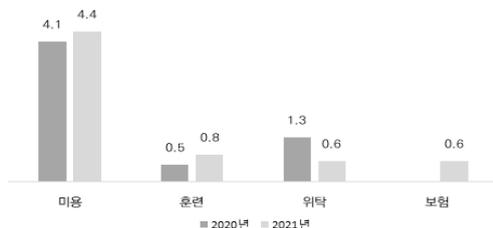


자료: 중국축산협회(2021), 「중국 반려동물 산업백서」

○ 중국 반려동물 관련 보험시장은 반려동물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수가 적고, 발병률이 높으며, 일반적인 질병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직 초기 단계 시장으로 볼 수 있음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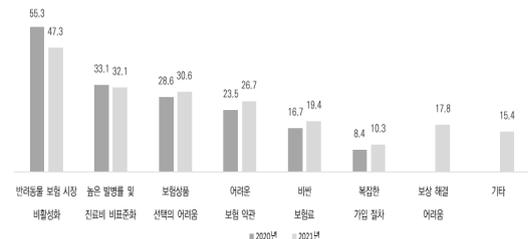
- 2021년 기준 반려동물 서비스 품목별 소비는 미용(4.4%), 훈련(0.8%), 위탁·보험(0.6%) 순서임
- 반려동물 보험 가입 시 반려동물 보험 시장 비활성화(47.3%), 높은 발병률 및 진료비 비표준화(32.1%), 보험상품 선택의 어려움(30.6%)에 따른 고민이 있음
 - 2022년 5월, 중국보험산업협회는 반려동물 병원 진료비가 표준화되지 못함에 따라 보험회사, 반려동물 병원, 반려동물 서비스 기관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보험사기 발생빈도가 높다고 발표함

<그림 9> 2020~2021년 반려동물 서비스 소비 구조 (단위: %)



자료: 중국축산협회(2021), 「중국 반려동물 산업백서」

<그림 10> 2020~2021년 반려동물 보험 소비 시 고민 (단위: %)



자료: 중국축산협회(2021), 「중국 반려동물 산업백서」

42) <http://www.jjckb.cn>

○ 중국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보험상품은 반려동물 의료보험과 책임보험이 있으나, 아직까지 중국의 반려동물 보험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음

- 반려동물 의료보험은 반려동물 진료비를 보장하고, 책임보험은 반려동물이 제3자에게 상해 및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함
- 반려동물 양육인의 29.6%만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고, 반려동물 양육인의 60.0%는 향후 반려동물 보험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중국 반려동물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8세까지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보장하며,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나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보장 비율이 낮아짐
 - Swiss Re 연구소에 따르면 반려동물 병원의 24.4%만 반려동물 보험회사·제3자 기관과 보험 제휴를 맺음⁴³⁾

〈표 5〉 중국 반려동물 보험의 표준약관

구분		특징
기본 요건	반려동물 나이	3개월~8세
	보장기간	1년
	건강고지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
	대기기간	30일, 일부 질병은 90일
	의료기관	지정된 의료기관: 만약 비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보장 비율이 낮음
	신분 증명서	마이크로칩 인식 대신 사진, 코 지문, 홍채 등 신원 확인 인식 기술을 사용함
	백신 접종 여부	일부 보험상품은 백신 접종이 필요함
보장 내용	질병·사고	일반 전염병, 내·외과 질환 등 상해를 보장함
	보장비율	40~80%
	회당 공제액	200위안 또는 약 10% 공제율
	회당 보장 한도	800~1,600위안
	연간 누적 보장 한도	2,000~50,000위안까지 다양함 일부 상품은 특정 유형의 질병에 대해 연간 누적 한도를 설계함
	부가 서비스	대부분 일정 횟수의 백신 서비스 또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함 일부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 미용 등 일상 케어 서비스를 제공함

자료: Swiss Re 연구소(2021), 「중국 반려동물 보험 발전 보고서」

○ 최근 보험회사들은 반려동물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의 일상생활 속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고, 지정된 의료기관에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을 도입함

- 중국 중앙보험회사는 반려동물 식품안전보험, 반려동물 위탁보장보험, 반려동물 마취사고·사망보험을 출시했으며, 질병뿐만 아니라 음식 섭취, 여행, 수술 중 일어나는 재해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함⁴⁴⁾

43) Swiss Re 연구소(2021), 「중국 반려동물 보험 발전 보고서」

44) <http://www.cbimc.cn>

- 2021년 5월 중국 평안손해보험회사는 반려동물 의료관리 시스템 ‘반려동물의 집(宠物之家)’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면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즉시 지급하는 청구직불제를 실시함⁴⁵⁾
- 중국 양광손해보험회사는 반려동물에게 발생하는 폐렴, 요독증, 당뇨병 등 118가지의 질병을 보장함

〈표 6〉 주요 중국 보험회사의 의료보험 특징 비교

구분		중안보험회사	평안손해보험회사	양광손해보험회사
보험상품명		반려동물 의료보험	반려동물 의료카드	반려동물 의료보험
기본 요건	반려동물 나이	2개월~10세	3개월~10세	3개월~8세
	보장기간	1년		
	건강고지	있음	없음	-
	대기기간	일반질병: 30일 암·구강질병: 90일 기타: 10일	30일	질병: 30일 기타: 0일
	의료기관	의료기관 준수	지정된 의료기관	
	반려동물 유형	강아지·고양이		
보장 내용	의료보장	모든 질병(선천성 질환, 선천성 기형, 유전병 제외) / 사고 상해		
	보험금액	15,000위안	10,000위안	30,000위안
	보장비율	지정병원: 60% 비지정병원: 40%	80%	100%
	회당 보험금 지급 한도	1,500위안	1,000위안	-
	공제액	일반 의료비용: 200위안(회) 수술: 0	0	3,000위안/년
	부가 서비스	원격진료 백신 1회/년	신체검사 1회/년 백신 1회/년	-
보험료(1년)		399위안	499위안	3개월~1세: 700위안 2~3세: 330위안 4~8세: 275위안

자료: VOBAO(2021), “2022년 반려동물 보험 종류와 가격, 어떤 반려동물 보험이 좋을까요?”

- 또한 반려동물 양육인이 반려동물 책임보험 상품을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100위안 (약 1만 8천 원) 내외로 비교적 저렴함
 - 중국 인민재산보험회사의 반려동물 책임보험 보험료는 43위안(약 8천 원)이며, 반려동물로 인해 제3자가 사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공제액 없이 10만 위안(약 1천 8백만 원)까지 보장함
 - 보험료 99위안(약 1만 8천 원) 납부 시에는 손실 금액의 20%를 공제하며, 30만 위안(약 5천 5백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

45) <https://www.cnjxl.com>

- 중국 태평양손해보험회사의 반려견 양육인 책임보험 보험료는 90위안(약 1만 6천 원)이며, 반려견이 제3자에게 상해를 입혀 진료를 보거나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보장을 제공함

〈표 7〉 주요 중국 보험회사의 책임보험 특징 비교

구분	인민재산보험회사	인민재산보험회사	태평양손해보험회사	
보험상품명	반려동물 책임보험	애견보호 책임보험	반려견 양육인 책임보험	
기본 요건	가입채널	홈페이지	징동 금융 앱	
	보장기간	1년		
	보장지역	제한 없음		
보장 회원	등록증	반려견 등록증	반려견 등록증, 건강증	
보장 내용	타인 사망	10만 위안	30만 위안	사망: 10만 위안 진료: 5,000위안
	타인 재산 손실	-		
	회당 보험금 지급 한도	5만 위안	15만 위안	사망: 2만 위안 진료: 1,000위안
	회당 공제액	-	재산손실: 500위안 전자제품: 1,000위안 손실 금액의 20%	100위안
	기타 보장	법률 비용(공용 보험금액)		
보험료(1년)	43위안	99위안	90위안	

자료: VOBAO(2021), “2022년 반려동물 보험 종류와 가격, 어떤 반려동물 보험이 좋을까요?”

○ 특히, 중국 보험회사는 Z세대의 니즈를 반영하고, 반려동물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함

- 반려동물 양육인의 연령을 살펴보면, 2020년만 해도 90년대생(38.1%)과 80년대생(36.2%)의 비율이 거의 비슷했으나, 2021년에는 90년대생(46.3%)의 비율이 80년대생(30.5%)보다 현저히 높아짐
- 2022년 11월, 중안보험은 반려동물 전시회에 참가하여 반려동물 의료보험 체험판, 반려동물 혈액형 검사 카드 등을 제공하고, 온라인 플랫폼 알리페이(Alipay)를 통해 반려동물 보험을 홍보함⁴⁶⁾
 - 알리페이는 보험계약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플랫폼이며, 반려동물의 코 모양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비문(鼻紋) 인식 기술 도입을 통해 반려동물 보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
- 2021년 8월, 타이강 온라인보험은 독일 베링거인겔하임 제약회사, 중국 신루이핑 애견의료그룹과 협업하여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출시했으며, 보험상품에 가입 시 신루이핑 그룹의 동물병원에서 무료로 베링거인겔하임의 백신 접종을 제공함⁴⁷⁾

46) <https://www.cs.com.cn>

47) <http://www.cbimc.cn>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 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
특별 회원	₩150,000원	
개인 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해외 보험동향 11호 [2022년 가을호]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문의 보험연구원 글로벌보험센터(02-3775-9037)
인쇄소 경성문화사

ISSN 2714-0482

정가 10,000원

